

June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6 vol.282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1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의 라 메르'
반갑습니다 부산비엔날레 신임 집행위원장 임동락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빛을 품은 공간 - 젠 스티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참가자 모집

제3회 **BNK** 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BNK금융그룹이 한국을 빛낼 젊은 예술인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외 유명 교수진과 5박 6일 합숙 레슨으로 구성된 제3회 BNK행복한 음악캠프를 참가비 전액무료로 개최합니다. 음악전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 일정 : 2015년 7월 27일 (월) ~ 8월 1일 (토) (5박 6일 합숙)
- ▶ 장소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 ▶ 원서접수 : 2015년 5월 20일 (수) ~ 6월 10일 (월)

▶ 제1회 BS행복한 음악캠프





BMCO

BNK뮤직캠프오케스트라(BMCO)

모집요강 및 캠프안내

캠프일정	▶ 일정 ① 기간: 2015년 7월 27일(월) ~ 8월 1일(토) (5박 6일 합숙) ②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소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 ▶ 캠프 수료 후 연주회 개최 ① 일시: 2015년 8월 1일(토) 오후 4시 ②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입장권 무료 배부: 7월 10일부터 인터넷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지원자격 ▶ 음악전공자로서 만 16세(1999년생)이상 29세(1986년생)이하 이면 누구나 가능 ※ 향후 중병사유 징기적 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참가비용 전액 무료	
	선발인원 ▶ 125명			캠프과정 ▶ 교과 내용: 유명 교수진의 전교별 마스터 클래스 (기인 & 앙상블) ▶ 특전: 참가자 전원 수료 연주회 참가 / 수료증 수여
원서접수	▶ 기간: 2015년 5월 20일(수) ~ 6월 10일(월) ▶ 접수 방법: BNK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BNK부산은행조은극장 홈페이지(www.gp-gp.co.kr)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bnmcco@naver.com) 접수 ▶ 선 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발시 우대)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선발분야 ▶ 클래식분야: 현악, 관악, 타악, 하프 ▶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 심사 (결과 발표일 2015년 6월 12일(금)) ▶ 2차 오디션: 2015년 6월 15일(월) ~ 6월 23일(화) ①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실시 / 결과 발표일: 2015년 7월 2일(목) ② 오디션 곡목 - 공통: 자유곡 1곡 (배편 약장) - 신청자 전원 3분이상 연주 증명서파일로 오디션 진행 (6월 15일 ~ 6월 23일까지 동영상 이메일 접수, e-mail: bnmcco@naver.com) - 결과 조회 방법: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홈페이지 에서 개별 조회	연주곡 ▶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제4악장 G.Mahler / Symphony No.5 C minor, IV Adagio ▶ 알프레드 리드 / 엘 카미노 리얼 Alfred Reed / El Camino Real ▶ 모차르트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단 4번, 작품364 제1악장 W.A.Mozart / Sinfonia Concertante in E Major, K.364 I Allegro maestoso ▶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36 P.I.Tchaikovsky /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문의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T. 051-661-4821) 세부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NK부산은행 홈페이지, www.busanbank.co.kr)



예술총감독 오승근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미국 보스턴 콘서바토리 졸업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교수진

관악지도교수 이정성 서울대학교, 미국 맨해튼 음대학원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첼로 송희승 서울대학교, 비안국립음대 수석 졸업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상 수상 및 정부장학생 현재 대구기독교대학교 교수	클라리넷 김현곤 서울대학교, 현현국립음대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서울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체리타제임버안셀블, 서울클라리넷앙상블 대표	트롬본 김은성 독일 쾰른, 안하임 국립음대 졸업 서울 트롬본과르레트 리트, 서울 심포닉밴드 지휘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김영목 경희대학교, 비안시립음대, 필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 졸업 경희대 음대 학장 역임 현재 경희대 평화의전당 관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첼로 이일세 비안국립음대 예술 최고학위 졸업 불가리아 플로브디브 국제음악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클라리넷 손기영 경성대학교 졸업 부산음악상 수상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베이스 트롬본 김은석 미국 맨해튼 음대 졸업, 뉴욕주립대 박사과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현재 서경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백재진 서울대학교, 비안국립음대 졸업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	베이스 김창호 서울대학교, 비안국립음대 수석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대 외래교수, 서울오케스트라 수석	바순 광정선 서울대학교,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성화고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금호첨단유지 소비자이터 단원	튜바 허재영 독일 쾰른국립음대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이재민 서울대학교, 독일프라이부르크 음대 졸업 한국일본·중일일보 콩쿠르 1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앙상 역임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베이스 박희철 부산대학교, 불가리아 국립 소피아 아카데미 졸업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바순 최영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이 국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노르웨이 트롬도임시립시립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일본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타악기 박병서 오스트리아 비안 국립음대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원장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교타타악7퍼펙트팀 음악감독
바이올린 양고운 서울대 재학중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현현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플루트 김영미 서울대학교, 프랑스 예클노르블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계원대학교 교수	호른 이석준 서울대학교 졸업 KBS-FM 한국악 음악가 음반 발매,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타악기 김경우 동일대학교, 독일 로스토크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현재 동의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 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린 양경아 미국 맨해튼 음대 및 대학원, 메릴랜드 대학교(박사) 졸업 2013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대 교수 역임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외장	플루트 최정운 함부르크 국립음대 졸업 하노이, 할스부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현재 독일브레머비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호른 준지 다케무라 (Takemura Junji) 미국 쿠틀리치 음악대학 졸업 도르치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이치타대학 교수 역임 현재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석	하프 박리나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학사, 석사,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비올라 최승웅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졸업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수석 역임, 현재대 교수 역임 현재 서울문화재단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오보에 이승희 서울대학교, 네덜란드 로테르담 콘서바토리의 졸업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인양고 외래교수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Dmitry Lokalenkov) 그네신 대학, 모스크바 콘서바토리의 졸업 오스카르시립시립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지휘자 다니엘S김 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대학원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비올라 릭터 노렌(Rictor Noren) 북이, 유럽, 일본 등 각국 리시온 개최 일본 쇼프로, 타키 이스타빌 등 제1인 초창공연 현재 보스턴 콘서바토리의 교수	오보에 이미성 서울대학교 졸업 Duquesne university, AD Pittsburgh PA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외래교수	트럼펫 성제창 서울대학교, 독일 현현 음대 졸업 제4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독일 레겐스부르크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2015
WORLD
CLASSIC
DISCOVERY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seun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디스커버리 음악

예술감독 : 오충근 |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 : 양경아(바이올린) | 해설 : 류태형

1월 24일 [러시아] / 4월 25일 [프랑스]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 7월 25일 [독일] / 10월 24일 [오스트리아] /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클래식과 다이아몬드의 행운을 함께!

매회 공연시 추천

굿모닝백이안과 - VIP 눈건강 검진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루메니스2 또는 BBL+레블라이트

에어부산 - 부산/김포 왕복 항공권

해운대 그랜드호텔 - 디너 식사권

1회~6회 모든 관람객 중 추천

갤러리젬 - 1캐럿 다이아몬드

굿모닝백이안과 - VIP라식 또는 라섹시술권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듀얼프락셀 또는 아이콘시술권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seun 세운철강

후원 102 굿모닝백이안과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RUNDAE GRAND HOTEL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극단 특별기획공연

작: 김의경 / 연출: 김수진 / 재구성: 사사키 아이, 김수진 / 예술감독: 문석봉
作: 金義卿 / 演出: 金守珍 / 再構成: 佐々木 愛, 金守珍 / 藝術監督: 文錫奉

음악극
화가 이중섭
길 떠나는 가족



2015. 7.11(토)~15(수)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공연 | 평일 19:30 / 토 · 일요일 17:00 | 균일 10,000원

※ 부산문화회관 할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예매시) / 예술인패스 소지자, 대학생 및 만 23세 이하 청소년 30% 할인(전화예매시)
중고생, 장애우(1~3급)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50% 할인(전화예매시)

CAST / 이현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엄지영, 채민수, 김민정, 이연진, 정은뜸, 고희우, 서희정, 박아영, 차승현, 박준서, 이재찬, 김성열

STAFF / 드라마투르기 김남석 조명감독 이상봉 무대미술 오오츠키 사토시 大塚 聡 오브제 노무라 나오코 野村直子 작곡·음악감독 오오누키 타카시 大貫 誉

작곡(뮤지컬) 한혜신 음악감독·조연출 오리라 안무 오오카와 타메코 大川妙子 제작 시마무라 히로야스 嶋村浩康 분장 이지원 사진 손재영 무대감독 정순지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 부산시립극단 협력 / 劇團文化座 문의 / 607-3107(홍보팀) 607-3148(공연운영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인터파크 AUCTION

당.대.최.고.의
음.색.과.만.나.다



벤 젤 폭스 Wenzel Fuchs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클라리넷 연주자

2015. 6. 19 (금)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 원 명

PROGRAM



피아노 강 지 은

Francis Poulenc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FP184
Camille Saint-Saëns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in E-flat Major, Op.167
Carl Maria von Weber	Grand Duo Concertante for Clarinet and Piano in E-flat Major, Op.48, J.204
	Intermission
Claude Debussy	Rhapsodie for Clarinet and Piano, L.116
Robert Schumann	3 Romances for Oboe and Piano, Op.94(performed on Clarinet and Piano)
Johannes Brahms	Sonata for Clarinet and Piano No.1 in f minor, Op.120/1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문화재단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 2천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문의 | 051)220-5812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 이순재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1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의 '라 메르'
- 10 공연일정
- 12 반갑습니다
부산비엔날레 신임 집행위원장 임동락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뤼미에르 형제, 상자 안에 갇힌 이미지를
세상으로 내보내다 _전은정
- 18 불멸의 거장_박목월④
생활과 가정의 중기 詩_장윤익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빛을 품은 공간 - 켄 스시_강기표
- 24 그곳에 가면
도심 속 창작 레지던시 공간 셋골문화예술촌
- 26 우리는 문화가족
장마루무용단
- 28 테마가 있는 여행
하동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Boards Inside⁺

- 34 프리뷰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새로 나온 책
- 61 새로 나온 음반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4 부산문화회관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2015년 6월호 통권 282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업 발행일 2015년 5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1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의 '라 메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5, 3106



초여름의 길목 6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인상주의 음악의 두 거장 드뷔시와 라벨의 작품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으면서 화제가 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처음 호흡을 맞추면서 그들이 빛어내는 앙상블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으로 선정된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프랑스 발레음악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아름다운 바다를 그린 드뷔시의 걸작 '라 메르'를 들려준다.

첫 곡인 비발디 '사계'는 사계절의 변화를 음악으로 그려낸 표제음악의 걸작으로, 협주곡의 형태를 확립한 비발디의 400곡이 넘는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묘사하고 있어 비발디의 아름다운 서정이 잘 드러나 있다.

바이올린 협연을 맡은 데이비드 김은 3살의 어린나이에 바이올린을 시작, 8살때부터 '바이올리니스트의 조련사'로 불리는 도로시 딜레이와 함께 수학했으며, 미국 줄리어드음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데이비드 김은 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지목된 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로서 뿐 아니라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브레바드, 마스터웍스(미국), 퍼시픽(일본) 등 수많은 페스티벌에도 참여해왔으며 이스턴 대학, 아일랜드 로드대학,

디킨슨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2014-15시즌에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이비드 김은 텍사스음대 교환교수, All-Star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미국 전역 PBS 방송국 및 뉴욕 연주, 프랑스 브르타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복귀, 미국 내 오케스트라 연주 및 리사이틀 개최, 7월 그랜드 티톤 뮤직 페스티벌 객원 악장 연주, 그리고 매 시즌 일본 효고아트센터 오케스트라 방문 및 마스터클래스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세계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고 있다.

1부 '사계' 전곡연주에 이어 2부에서는 프랑스 작곡가인 라벨과 드뷔시의 곡으로 꾸며진다. 첫 곡인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은 라벨의 3개의 발레곡 중 하나로, 그의 창작의 절정을 이룬 걸작이다. 당시 파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발레 뤼스(러시아 발레단)'를 위해 작곡된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고대 그리스신화 중 양치는 다프니스와 그의 연인 클로에와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1912년 6월 8일 파리에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늘날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처럼 발레곡 보다 관현악곡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제2모음곡은 '볼레로'와 더불어 라벨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다.

연주회의 마지막 곡은 '인상주의 음악'을 창안한 드뷔시의 걸작 '라 메르'로 장식한다. 낭만주의에서 현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인상주의 음악'은 전통적인 화성이나 선율, 형식미 등을 뒤로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인상, 분위기, 느낌 등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미지즘(imagism)적인 음악들을 의미한다.

일본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1760~1849)의 채색목판화 '카나가와의 큰 파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라 메르'는 바다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바다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관현악으로 표현하고 있어 인상주의 음악의 정점이 라고 평가받고 있다.



6

2015 / JUNE

CULTURAL SCHEDULE

청림 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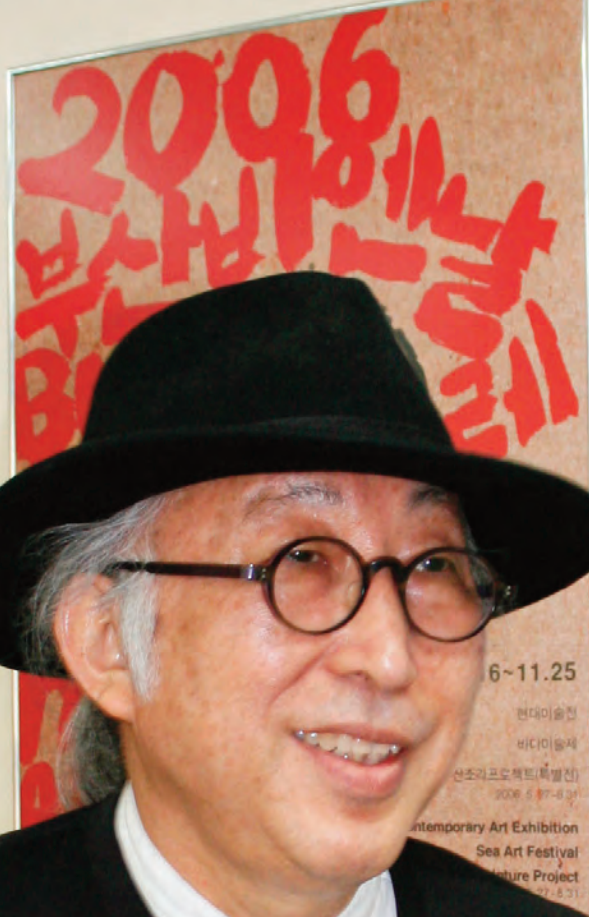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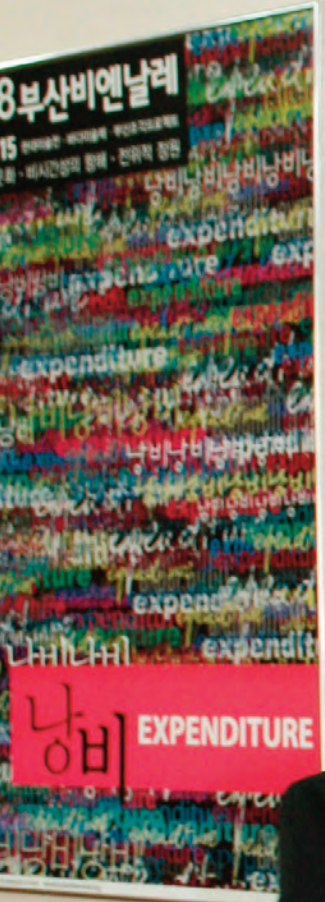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위원회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1	2
	<p>대 부산장로성가단 제16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지청화(010-2554-4002)</p> <p>중 악물오남용 예방 인형극 '방귀뽕 조이와 말쑥쟁이 통이' 10:30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851-1854)</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소프라노 구민영'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7	8	9
<p>대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하버드대학교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19:30 초대/칸투스(02-592-8891)</p> <p>중 UKO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17:00 초대 UKO(624-8084, 010-3863-3087)</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바리톤 윤오건'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14	15	16
<p>소 2015 Rakshmi & U 'Nassam el Cairo Show' 19:00 균일 3만 5천원 (사)가디스벨리댄스 부산지부(010-3871-9149)</p>	<p>대 부산CBS여성성가단 제13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부산CBS여성성가단(010-5873-2805)</p> <p>중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국제안무가 육성공연 19: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 7881~2)</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소프라노 왕기현'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대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인형극 '편식이의 하루' 10:30 무료/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60-3296)</p> <p>대 캄보디아 선교금기 마련 소프라노 김유섭 성가 독창회 20:00 2만원·1만원/부산문화(1600-1803)</p> <p>중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및 폐막축 하공연 19: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868 7881~2)</p>
21	22	23
<p>중 2015년 글로벌공동체 다문화가족 음악회 18:00 부산사랑여성회(010-8266-6662)</p> <p>소 제6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15:00 초대/참플룻(010-4016-7477)</p>	<p>중 제24회 글로리콰이어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글로리콰이어(010-5513-0314)</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베이스 김정대'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중 강소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강소연(010-9811-3613)</p> <p>소 2015 풍류 11가-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춤 빛깔 찾기 19:30 균일 3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7,3154)</p>
28	29	30
<p>대 뮤지컬 '어린이난타' 전국투어 10:40, 13:30 5만원·4만원·3만원 피엠씨네트웍스(02-738-8289)</p> <p>중 박종원 댄스컴퍼니 스트릿댄스 뮤지컬 '고스트(GHOST)' 18:00 3만원·2만원 박종원 댄스컴퍼니(999-5301)</p>	<p>대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인형극 '편식이의 하루' 10:30 무료/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60-3296)</p> <p>소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 초청 김민표 작곡 발표회 19:00 초대/MH예술기획(010-9505-2095)</p> <p>국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테너 양승엽' 14: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대 제8회 부산원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부산원로오케스트라(010-3074-0366)</p> <p>중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 연주회 19:30 초대/김진희(010-9928-3733)</p>

<예술제의 초대>는 Caffé Dene 카페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3</p> <p>대 Doctors Symphonic Band 제14회 정기 연주회 19:30 초대 닥터스 심포닉 밴드(010-9458-9258)</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5, 3143)</p> <p>소 어린이뮤지컬 '초강력 아빠 팬티' 10:15, 11:15 균일 1만원 상상나래(010-3094-8336)</p>	<p>4</p> <p>대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19:30 1만원·7천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8, 3142)</p> <p>중 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 제5회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부산메트로폴리탄팍스오케스트라(070-7727-0188)</p> <p>소 황윤희의 춤 19:30 초대/황윤희(010-2620-8251)</p>	<p>5</p> <p>대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 '3테너와 함께하는 하모니' 19:30 3만원·2만원·1만원/우리아트(920-9545)</p> <p>소 'Dream Performance 2015'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19:00 무료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627-7992)</p>	<p>6</p> <p>대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기념음악회 제3회 소리마루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소리마루합창단(010-9500-0981)</p> <p>중 광복 70주년 특별공연 창작뮤지컬 '평화의 영웅' 14:00, 17:00 균일 1만원 문화마루(070-7512-352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p>10</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11</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12</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10:00 부산MBC(760-1126)</p>	<p>13</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아메리카대륙 11:00 3만원·2만원·1만원/BSO(621-4577)</p> <p>중 2015 한얼樂會 제9회 정기연주회 '돈단무심(頓斷無心)' 18:00 무료/한얼악회(010-4503-1175)</p> <p>소 토요일상설무대-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p>17</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18</p> <p>대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중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소 2015 제32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MBC(760-1126)</p>	<p>19</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1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치차오의 라 메르'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p> <p>중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7회 정기 연주회 'John Leavitt - Festival Mass' 20:00 초대/한울림합창단(010-9044-7576, 010-6252-0019)</p> <p>소 피아니스트 박종화 '건반 위의 이야기' 11:00 균일 2만원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2~4)</p>	<p>20</p> <p>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샌프란시스코 New Choir 초청 합동연주회' 19:00 초대 부산하모니합창단(010-5032-1028)</p> <p>중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파르텐 콘서트' 17:00 초대/김정희(010-4552-4106)</p> <p>소 토요일상설무대-(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 지회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p>24</p> <p>대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인형극 '편식이의 하루' 10:30 무료/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60-3296)</p> <p>중 극단 남비곰비 교통안전 창작뮤지컬 '뒤풀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0:15, 11:20 균일 5천원 극단 남비곰비(02-882-9001)</p>	<p>25</p> <p>소 가족뮤지컬 '태권소년 홍길동' 10:10, 11:20 균일 5천원/키즈샘(02-6203-6593)</p>	<p>26</p> <p>중 열정 넘치는 휴(休)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 M&M CANTO(010-4434-6605)</p> <p>소 가족뮤지컬 '태권소년 홍길동' 10:10, 11:20 균일 5천원/키즈샘(02-6203-6593)</p>	<p>27</p> <p>대 뮤지컬 '어린이안타' 전국투어 10:40, 13:30, 16:00 5만원·4만원·3만원 피엠씨네트웍스(02-738-8289)</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Klang String Quartet' 16: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5)</p>
<p>전사실</p> <p>제9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대전사실 6월 2일(화)-6월 6일(토) (사)국민예술협회 245-2521 *시상식 6월 6일(토) 14:00 - 국제회의장</p> <p>포슬린페인팅 전시회-중전사실 - 포슬린페인팅 Art스쿨 전시회 6월 4일(목)-6월 7일(일) KPAS 583-1020</p>			
<p>제9회 대한민국 한서미술대전-대·중전사실 6월 17일(수)-6월 21일(일) 한서미술대전 사무국 808-2323 *시상식 6월 21일(일) 14:00 - 국제회의장</p> <p>그들만의 풍경-중전사실 6월 23일(화)-6월 28일(일)</p> <p>제25회 국제서화예술전-대전사실 6월 27일(토)-6월 29일(월)/김종곤 010-4448-9553</p>		<p>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6.13 / 6.20 / 6.27 / 7.4 / 7.11 토요일 09:30 소극장</p> <p>부산시립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6.20 / 6.27 / 7.4 / 7.11 토요일 10:00 부산시립극단 연습실</p> <p>문의_ 부산시립예술단사무국(607-3102~4)</p>	



부산비엔날레 신임 집행위원장
조각가 임동락

● 국내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온 조각가 임동락 동아대학교 교수가 오랫동안 공식이었던 부산비엔날레의 신임 집행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산비엔날레에 대한 임동락 신임 집행 위원장의 남다른 애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과 미술애호가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

“집행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미술인들의 바람을 잘 알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산비엔날레 발전을 위해,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부산비엔날레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임동락 위원장의 ‘제9대 집행위원장 위촉 승인’ 안전에 찬성하였다. 임동락 신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집행위원장이 오랬동안 공식이었던 만큼 최종승인 결정과 동시에 집행위원장으로의 공식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다. 당장은 9월로 예정된 2015 바다미술제와 2016 부산비엔날레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비엔날레를 시작할 때 운영위원장을 맡았었는데 거의 20년 만에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산비엔날레는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부산 작가들이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해외 기관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하며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락 집행위원장은 국내 및 아시아권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뿐 아니라 미국까지 진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이다. 부산 미술인들이 사제를 털어 꾸려온 현 부산비엔날레의 전신인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부산국제바다미술제, 부산국제야외 조각심포지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임동락 위원장은 문화체육부 자문위원,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 현대조각가회 회장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부산비엔날레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비엔날레가 처음 출발했던 당시 미술인들의 열정, 바람을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평가하고 도

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 미술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열정, 작가정신을 잘 알기에 임동락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부산비엔날레에 거는 기대 또한 커졌다. 20년 전 부산의 특성을 살린 미술로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 ‘에콜 부산’을 주창했던 임동락 집행위원장은 지역 부산의 특성을 살린 미술 작품으로 앞으로 해외미술관, 세계 미술계와 교류하며 젊은 작가들의 해외 연수, 레지던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프랑스 라 데팡스에서 초대전을 가진 바 있는 임동락 위원장은 라 데팡스 유럽 조각공원에 아시아 작가로는 유일하게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라 데팡스에 설치된 작품을 보고 대사관을 통해 네덜란드 크렐러뮐러 미술관에서 작품 설치 제의를 받으면서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동부 에드시의 도심 중앙광장에 그의 작품 ‘포인트-성장’이 설치되었다. 에드시에는 62 에이커의 조각공원과 반고흐, 피카소, 몬드리안 등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크렐러뮐러 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조각가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국 곳곳에서도 그의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해운대 해수욕장의 인어공주상이 바로 임동락 위원장의 작품 ‘황옥공주’이다.

부산시민들이 일상에서 미술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임동락 위원장은 부산비엔날레가 의례적인 전시행사에서 한층 더 진화된,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다운 비엔날레’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싶다.



뤼미에르 형제, 상자 안에 갇힌 이미지를 세상으로 내보내다

글 전은정 프랑스 통신원

“

올해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환경문제가 은근 걱정되긴 하지만 가뜰이나 습기도 많은 프랑스에서 흐리기까지 하면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는 쉽지 않기에 포근한 봄이 반갑게 다가 오는 것도 사실이다. 덕분에 여름이 느껴지는 오월의 중간, 미뤄뒀던 한 전시장을 찾았다. 뤼미에르의 첫 영화가 상영된 지 120년이 되는 올해,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뤼미에르형제’의 기획전 이 한창이다. 프랑스 시네마테크를 제외하곤 파리에선 조금 뜸했던 영화관련 전시회가 ‘뤼미에르전’으로 돌아와 한층 더 반갑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공화국에 의한 프랑스 예술의 영광을 위한 전용관’이라는 표제하의 그랑 팔레에 어울릴 만한 전시회다. 리용에 있는 ‘뤼미에르 박물관’의 소장품을 파리로 옮겨 놓은 이번 기획전은 영화 기원과 뤼미에르의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



엄격히 말해 영화기술을 뤼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아니다. 뤼미에르의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에 앞서 에디슨은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라는 영사기를 발명했으며 에피엔느 쥘 마레는 '사진총'이라는 형식의 카메라를 제작하는 등 움직이는 영상을 담으려는 시도는 이미 존재(이러한 도구들은 한 사람만 사용 가능한 제약이 따른다)했으며 영화기술 발전의 기원과도 같은 카메라 옵스큐라(caméra obscura) 등 사진 기술은 이를 훨씬 앞섰다. 하지만 촬영과 영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의 발명과 함께 대중들에게 돈을 받고 스크린 상영을 하게 된 시초가 뤼미에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적 탐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움직이는 영상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오귀스트와 루이 뤼미에르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1895년 12월 28일 파리의 그랑 카페 지하 '인디언 살롱'에서 첫 선을 보인 그들의 50초 단편 영화 <열차의 도착(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찍었을 뿐인데 이를 본 관객들이 마치 현실 같은 이 영상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작은 상자에 담은 실사화면을 스크린에 투사시키면서 거대한 화면으로 변한 '영화'가 우리 앞에 선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영화'라는 존재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은 상상 가능하다.

사진사였던 아버지를 둔 뤼미에르 형제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더군다나 리용에 위치한 아버지의 사진 회사에서 일하던 형 오귀스트(Auguste)는 경영자로서, 동생 루이(Louis)는 기술자로 사진 산업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움직이는 이미지



① 그랑 빨레 앞 뤼미에르 기획전 포스터

② 1895년 첫 상영관 '인디언 살롱'을 재현한 방. 당시 1프랑의 요금을 받고 상영된 열 편의 단편이 그대로 재현된다. 스크린은 '아기의 점심식사'의 한 장면

재현에 관심을 가졌던 일군의 사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앙트완느(Antoine)(사진작가 나다르Nadar의 친구이며 화가이기도 하다)는 1894년 파리에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접한 후 그 감명을 두 형제에게 전하며 영화산업의 미래를 전망했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의 보완작업을 통해 마침내 기술자인 루이 뤼미에르에 의해 영화 도구 '시네마토그래프'는 완성되고 두 형제의 공동작업으로 오늘 날의 '영화'가 탄생했다.

하지만 1907년 이후 루이 뤼미에르는 영화제작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미 영화 이미지에 대한 흥미가 덜해진 관객들로 인해 상업성이 낮아진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진기술에 더 관심이 많았던 루이는 영화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1903년에 '오토크롬(Autochrome(천연색 투명사진))'을 완성한다. 또한 뤼미에르 형제는 오늘날 영상작업의 모태가 되는 여러가지 실험적인 발명품을 내놓는다. 이미 1900년대 초반 360도 영사가 가능한 포토라마(Photorama)에서부터 3D의 원조격인 입체영상까지!

뤼미에르 형제의 첫 출발점은 발명가와 기업가였지만 세상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했던 루이 뤼미에르(통상 '뤼미에르 형제'



로 알려진 그들의 작업은 엄격히 말하면 동생인 루이 루미에르의 작품들이다)는 이 산업기술을 예술의 영역으로 승화시킨다.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나선 루미에르는 이동이 가능했던 시네마토그래프로 실재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을, 세상을 여과 없이 담을 수 있었다.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 배치로 인한 단일 쇼트로 구성된 그의 영화들은 심도를 강조한 화면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친다. 정교하고 구조화된 원근법의 최대한 활용으로 하나의 쇼트라는 간결함 속에 다양하고 연속적인 서사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깊은 심도의 카메라는 전후방화면의 절묘한 짜임새로 역동성을 더하고 사선으로 배치된 화면구성 속에서 움직이는 대상을 잡아내면서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고정된 화면에 입체감을 더한다.

공식적인 루미에르의 첫 상영작 <기차의 도착>에서 피사체로 '기차'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La sortie de l'usine Lumière à Lyon)>은

어떠한가? 열려져 있는 공장의 문으로 처음에는 몇몇의 노동자가, 이어서 한 두 무리의 인물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문을 빠져 나오면서 좌우로 흩어진다. 몇 십 초의 시간에 공장을 나서는 일군의 노동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은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낸다. 한가로운 봄날 오귀스트 루미에르의 가족 식사를 찍은 <아기의 점심식사(Le repas de bébé)>는 한 부르조와 가정의 실제모습을 재현(식탁 위의 오브제들과 함께)하는 한편 그 뒤로 보이는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루미에르가 '운동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영화로 재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기도 하다.

흔히 시나리오가 없으며 전문 배우들을 기용하지 않고 실상의 모습을 찍었다는 의미에서 루미에르의 영화를 기록영화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화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루미에르는 일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거나 실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특히 <물 뿌리



- ④ 전시회장 마지막 부분에는 자비에 돌란, 타란티노, 알모도바르 등 여섯명의 현대 영화감독들이 루미에르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를 패러디한 작품을 상영 중이다.
- ④ 루미에르 형제와 그들의 촬영팀이 함께 만든 1,422개의 작품을 한 곳에 모은 가로 3m, 세로 9m 높이의 거대한 비디오 설치 벽.

- ⑤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의 한 장면 1895년
- ⑥ <열차의 도착>의 한 장면 1895년
- ⑦ <물 뿌리는 정원사> 두 번째 판 1896년

는 정원사(L'arroseur arrosé)의 경우 고정된 한 화면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영화의 시공간은 확장되며 극영화적인 연출이 두드러진다. 두 개의 판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첫 번째에서는 두 인물이 화면 양쪽으로 동일 선상에 위치함으로써 평면적이지만 이를 재구성한 두 번째 판에서는 두 인물을 사선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화면은 깊고 넓어져 3차원적 공간이 형성된다. 또한 정원사가 도망가는 아이를 잡으러 가면서 인물이 없는 빈 공간만 남게 되고 잠시 후 이들이 화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외화면을 영화의 공간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이렇듯 루미에르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상의 흐름은 시대의 모습을 담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화가 예술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미학적 실험의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루미에르(Lumière)는 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뜻이다. '빛'을 통한 작업의 산물인 영화의 발명이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 이

뤄졌다는 것에서 운명이라는 묘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루미에르에 의한 영화 신기술의 발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헐리우드의 영광(?)에서부터 이제는 일상화된 동영상놀이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큰 자락은 존재 불가능했을 거라던 프랑스 친구의 목소리가 치기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영화라는 형식은 일상의 기록에서부터 역사의 현장으로, 인간 상상력의 실험영역으로 그 장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있다. '영화란 무한으로 열려있는 창문이다'라는 프랑스 시네마 테크 창시자인 앙리 랑글로와(Henri Langlois)의 말이 새삼 다가온다.



생활과 가정의 중기 詩

글 장윤익 동리목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박목월의 시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가 추구한 주제나 시의 세계가 5주년을 주기로 변화하고 있다.

목월의 중기 시는 시집 <난·기타>와 <청담>에 발표된 시가 중심이 되며, 일상사와 주변 이야기, 가정과 생활의 시적 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중기 詩에 나타나는 인생문제의 새로운 인식은 박목월의 시가 시대적인 상황과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거기에서 삶과 죽음의 분리 및 생의 허무함을 자연과 교감하는 시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비근한 일상사가 생의 근원적 문제가 되며, 주변의 이야기가 가장 훌륭한 시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인식한다.

靑馬는 가고 / 芝薰도 가고 / 그리고 洙暎의 永訣式 / 그날 아침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 / 그들이 없는 / 서울의 거리 / 靑馬도 芝薰도 洙暎도 / 꿈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 깨끗한 潛跡 / 다만 / 鐘路二街 / 버스를 내리는 斗鎭을 만나 / 白畫路上에서 /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 어느 젊은 詩人 / 出版記念會가 파한 밤거리를 / 南秀와 거닐고 / 宗吉은 어느 날 아침에 / 전화가 걸려왔다.
- <日常事>의 전연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소중한 문단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목월은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사(日常事)들을 우리 삶의 근원적 의미를 찾는 시적 체험으로 변용한다. 삶의 허무함과 살아있다는 존재의 새로운 의식도 일상의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시적 체험으로 토로한다.

청마와 지훈과 수영이 가고 없는 '깨끗한 잠적(潛跡)'의 서울의 거리에는 옛날과 변함없이 출판기념회가 개최되고 아직도 살아 있는 南秀와 宗吉과의 관계는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삶이며 시의 현실이다.

박목월은 정부수립 이후 6·25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에서 일상의 문제와 연계되는 생활과 역사의 현장을 시로 형상화하여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박목월 가족사진

목월을 '생활의 시인, 인생의 시인'이라 지칭하는 것은 목월의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지적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목월이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의 체험을 소중한 시적 체험으로 승화한 작업들은 시의 대상이 초기 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상(地上)에는 / 아홉결레의 신발 /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깁에는 /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 알 電燈이 켜질 무렵을 /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결레의 신발을 // 내 신발은 十九文半 /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 그들 옆에 벗으면 / 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 여기는 地上 연민(隣憫)한 삶의 길이여 / 내 신발은 十九文半 //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

을 걸어 /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아니 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 아니 地上에는 /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 존재한다 /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 -〈가정〉의 전체

나는 우리 信奎가 / 젤 예뻐 / 아암, 문규도 예쁘지 / 밥 많이 먹던 애가 / 아버지인 젤 예뻐 / 낼은 아빠 돈 많이 벌어가지고 / 이만큼 선물을 / 사갖고 오마 -〈밤상 앞에서〉 첫 연

나이 오십 가까우면 / 기운 내의는 안 입어야지 / 그것이 쉬울세 말이지 / 성한 것은 / 자식들 주고 / 기운 것만 내 차례구나 / / 지금은 엄동 눈이 얼어, 빙판이구나 / 등만 따스면 / 그만이라 / 걸치레도 벗어버릴까 / / 누더기 걸친 우리 내외 / 보고 빙긋 마주 빙긋 / 겨울 삼등을 지내는구나 -〈영탄조〉 일부

위의 시들은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시화하고 있다. 박목월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산가족들이 겪는 시대적 아픔과 가난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가정과 생활의 문제와 연계되는 현상이 시로 형상화된 것은 상당한 변모로 보인다. 신발을 통한 가족의 애정 표현은 매우 특이한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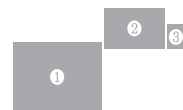
이러한 시적 변화를 두고 목월을 '생활의 시인·인생의 시인'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소 무리가 있는 지적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생활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체험을 소중한 시적 체험으로 승화한 작업들은 초기 시와는 매우 다른 시 세계를 전개한다. 가정과 생활을 소재로 한 박목월의 중기시 창작은 상당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빛을 품은 공간 - 켄스시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해운대 신시가지는 좌동과 중동의 일부로 형성되어 있다. 장산역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시가지가 늘어서 있고, 북서쪽으로 장산이, 동쪽은 송정동이, 서쪽은 반여동·우동, 남쪽은 해운대 해수욕장, 북쪽은 기장군과 접해 있다. 좌동은 중동 일대의 옛 온천지역인 귀남평원(龜南平原)을 가로질러 동백섬 옆 수영만으로 흐르는 춘천천(春川川)의 왼쪽에 자리한 마을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춘천천 상류를 경계로 중동의 대천마을과 인접해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달맞이길이 생기기 전에는 해운대에서 송정·기장 방면으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또한 장산 남쪽 사면의 평야를 낀 지대로 대부분 군사시설 지역이었으나, 1993년 이후 신시가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중동은 조선시대 말기에는 동래군 동하면(東下面) 중리(中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좌동과 달리 해운대 해수욕장의 구시가지와 해운대 신시가지와 접하며 자연 마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 ① 젠 스시 전경 - 이질적 두 볼륨의 조화 ©조명환
- ② 투명성의 정면과 계단 ©조명환
- ③ 홀의 측벽으로 떨어지는 빛 ©조명환

개발의 틈바구니

‘젠 스시(善すし)’는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의 이면에 숨겨져 있다. 좌동의 개발지와 인접하며 신시가지 조성이라는 개발의 틈바구니에서 용케 살아남은 자연 마을 속에 들어 있다. 주위의 아파트가 칼로 도려낸 듯 앞으로 버티고 있고, 뒤로 자연 마을이 에워싸고 있다. 대지는 새롭게 조성된 직선형 도로 1개와 자연마을 2개의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해 있어 건물의 정면성은 몽타주같이 보여 주고 있다. 스시의 생선과 흰쌀밥같이...

이질적 두 볼륨의 조화

건축주는 오래전부터 같은 상호의 일식당을 운영해온 부산의 유명한 요리사이다. 건축주의 이름 중 한 글자인 善(젠)과 ‘스시’가 만나 상호가 되었고, 건축주는 올바르고 착하다는 문자적 의미와 ‘스시’라는 구상적 의미가 건축에 담기길 원하였다고 한다. 건축가인 이장민¹⁾ 교수(인제대학교 건축학과)는 “흰쌀밥과 생선 두 가지의 단순한 재료가 만나 조화롭고 감동의 맛을 내는 스시, 스시와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다”라고 하며 스시처럼 두 개의 다른 재료가 만나 조화로운 맛을 내듯 전벽돌과 흰색 벽면의 이질적 두 볼륨이 겹쳐져 이로 인해 형성되는 다양한 공간적 열림과 개방감으로 독특한 감흥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마치 쌀밥의 흰 벽면과 전벽돌의 생선으로 스시를 만들 듯 새로운 건축적 조화를 보여 주고 있다.

빛을 품은 절제된 공간

좁은 대지의 상업적 공간이 늘 그렇듯 1층은 주차장 2층은 접객 공간, 오붓한 테이블의 홀이 있고, 중앙에 스시와 직접 접하는 카운터 공간이 위치하며 후면에 주방이 에워싸고 있어 동선의 유려함을 보여준다. 3층은 입식과 좌식의 개별실이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다. 1,2층을 이어주는 정면의 계단은 외부와 직접 접해 오르며 개방성을 주고 있으나, 2,3층을 흐르는 계단은 외부와 닿지 공간적 정화를 유도한다. 2층의 출입구 상부의 숨겨진 광(光)천정과 홀의 측벽으로 떨어지는 빛은 시간의 변화를 보여 주며 한줄기 빛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빛이 되어 스며들기도 한다. 3층의 개별실 또한 복도를 면한 중정을 통하여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 구성을 보여준다. 외부와 차단된 인공적 시간의 변화가 아닌 외부의 시간을 함께 하는 공간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며 건축가가 의도한 외부로 닿고, 내부에서 열려있는 공간적 반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벽돌,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의 실내 마감은 장식적 허세를 배제한 단순한 재료의 절제된 공간을 더하며 공간이 빛을 품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 | | | | |
|---|---|---|-------------------------------|
| 4 | 5 | 6 | ④ 2층 출입 홀_◎조명환 |
| | 7 | 8 | ⑤ 2층의 출입홀 상부의 숨겨진 광(光)천정_◎강기표 |
| | | | ⑥ 대면 카운터와 요리사_◎조명환 |
| | | | ⑦ 3층의 중정과 개별실_◎조명환 |
| | | | ⑧ 3층 개별실_◎조명환 |

좋은 재료와 훌륭한 손맛의 요리사, 이를 맛있게 먹어 주는 손님이 만나 완벽한 스시가 완성되듯 좋은 건축은 현명한 생각을 가진 건축주와 건축주의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건축가, 이를 꼼꼼하게 시공해주는 시공자가 만났을 때 좋은 건축이 탄생한다. 스시의 본질이 배부름이 아닌 맛에 있듯 건축의 본질은 채움에 있지 않다. 문화, 생활 등을 담는 공간에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의 본질을 갖기도 한다. 짧게는 하루의 시간을 담기도 하지만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을 담기도 한다. 시간은 빛이다. 시간의 쉼 속에서 이야기가 쌓여 가고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은 이야기를 품는다. 맛깔스러운 스시가 소담한 접시에 담겨 나오듯...

1) **이장민** 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프랑스 국가공인건축사이다. 파리의 Barclay&Crousse 건축사무소와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현재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작품 및 참여 작품으로는 해운대 백병원, 가톨릭 중앙의료원, 2003년 Architectural Review지의 올해의 주목받을 작품에 선정된 Maison EQUIS, 건축가 로랑 부두앙과 공동작업한 몽트레이 집합주거 등이 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도심 속 창작 레지던시 공간

섯골문화예술촌

최근 들어 도심의 버려진 공간이 예술창작센터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 금정구 서동 주택가에 문을 연 셋골문화예술촌 역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비워진 공간에서 젊은 작가들의 창작 레지던시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셋골문화예술촌은 서동의 옛 명칭인 '섯골'에서 그 이름을 가져왔다. 서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정책 이주촌으로, 영주동 철거민들이 이 곳으로 이주해오면서 개발된 뒤 한때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인근 금사공단과 더불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

지만 2000년대 들어 금사공단이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디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2년 시장 입구에 서동예술창작공간이 문을 열면서





서동 미로시장 인근에 조성된 첫골문화예술촌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 공간이지만 여느 레지던시와 달리 입주 작가와 주민들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개관 후 예술인 창작공간을 넘어 평생교육관, 영화상영관, 도서관, 갤러리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여기에 3월 문을 연 첫골문화예술촌이 가세하면서 서동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마을로 떠오르고 있다.

첫골문화예술촌은 서동 미로시장 인근,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비어있던 2층 주택을 금정구가 사들여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 1층에 개방형 작업실 2곳, 2층에 개인 작업실 3곳이 꾸며졌다. 지난 1월 입주작가 공모를 거쳐 현재 공예작가 이미경(캘리그래피), 이귀해(클레이아트), 김신애(생활공예), 공예작가 단체인 수다, 부산자연예술인협회(공공예술기획)가 활동하고 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장르가 공예인 만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입주작가를 공예작가로 선정했다.

첫골문화예술촌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 공간이지만 여느 레지던시와 달리 입주 작가와 주민들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개소 전부터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예교실이 열리기도 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은 이미경 씨가 진행하는 캘리그래피 강좌가, 수요일에는 이귀해 씨가 진행하는 폴리머 클레이 강좌, 목요일에는 고정화, 김은경 씨가 진행하는 금속공예 강좌가 열리고 있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좌를 수강한 시장 상인 한 분이 이 강좌를 통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경기불황으로 위축되어 있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입주작가인 부산자연예술인협회 조성백 대표는 9월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강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늘어갈 계획이다. 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동호회 결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작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기획 전시도 계획중이다.

“제2, 제3의 문화예술공간이 생기면서 첫골문화예술촌이라는 이름대로 서동지역이 진정한 문화예술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의 첫골문화예술촌 051)525-6262

아마추어 무용단의 '마루'를 꿈꾸는 장마루무용단

순 우리말로 '꼭대기'라는 뜻의, 최고를 의미하는 '마루'. 아마추어무용단의 '마루'를 꿈꾸는 장마루무용단은 올해로 창단 4주년을 맞지만 탄탄한 실력과 활발한 공연활동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장마루무용단은 지난 2012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씨의 춤을 배우기 위해 모인 제자들로 결성됐다. 여느 아마추어 무용단과는 달리 단원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춤을 추어온 춤꾼들이라 실력에서만큼은 전문 춤꾼 못지않게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재 장마루무용단 단원들은 모두 18명. 4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하나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나 똑같다.

장마루무용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춤 연습을 위해 세차례 모임을 갖는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장래훈 씨의 고집으로 주 3회 연습은 창단 때부터 지켜온 약속이다. 무용단의 연습량만 따진다면 프로단체 못지 않다는 장래훈 씨는 '기교 보다는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단원들을 지도한다. 평소 생활에서는 단원들을 누님이라 부를 만큼 가깝게 지내지만 연습에서만만큼 철두철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장래훈 씨의 열정 때문인지 장마루무용단에는 울산, 포항, 양산 등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단원들이 많다.

단원들 대부분이 불교 신자들이라 사찰에서 공연요청이 많아 불교무용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장마루무용단은 우리의 전통 춤사위 뿐 아니라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 의식무도 공연을 통해 일반인들에 알리고 있다. 이제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도 장마루무용단을 찾고 있다.

장마루무용단은 창단 1년 후인 지난 2013년 5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창단공연을 가졌다. 이후 매년 한차례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공연이 연기되면서 올해 하반기 두 번째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공연 외에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과 만나온 장마루무용단은 올

해 삼락공원 벚꽃축제, 기장벌치축제, 사찰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지난 5월 23일에는 금정산성에서 열렸던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초청받아 흥춤과 살풀이, 작법, 한량무 등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무용단 총무를 맡고 있는 신서련 씨는 장마루무용단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안방마님이다. 도살풀이를 배우기 위해 장래훈 씨를 찾아왔다 장마루무용단과 인연을 맺은 신서련 씨. 젊은 시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시작한 우리춤이 이제는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큰 의미가 되었다는 그는 언젠가 장마루무용단의 이름을 내건 큰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있다.

장마루무용단의 큰 언니 김귀자 씨는 13년 전 양산에서 있었던 부산시립무용단 공연을 관람하다 장래훈 씨를 알게 되고 이후 흥춤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면서 장마루무용단과 인연을 맺었다. 40년도 훨씬 지난 젊은 시절 춤을 배우기 위해 당시 범일동에 있던 이매방 교습소를 직접 찾아갈 정도로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김귀자 씨는 지금도 연습이 있는 날이면 양산에서 빠지지 않고 부산을 찾고 있다. 김귀자 씨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춤추고 싶다.

지난해 9월 장마루무용단에 입단한 강영란 씨는 무용단의 가장 막내이다. 춤을 잘춰보고 싶다는 욕심에 장마루무용단의 문을 두드렸다는 강영란 씨는 춤에 대한 열정과 단원간에 서로 챙겨주는 끈끈함이 있어 무용단 활동이 즐겁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동래지신밧기 이수자이기도 한 이선혜 씨 역시 새로운 춤 선생을 찾다가 장마루 무용단과 인연을 맺었다. 춤에 대한 열정과 욕심에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그는 제대로 된 춤을 배우고 출 수 있어 연습있는 날이 기다려진다.

천년의茶香이 가득한 야생차의 본고장

하동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여름의 문턱 입하(立夏)도 지나고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했던 지난 5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107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의 테마여행지는 맑고 푸른 섬진강변을 따라 천년의茶香이 가득한 아름다운 고장 하동. 초여름 짙어가는 수풀만큼이나 부푼 설렘을 안고 43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길을 나섰다. 이날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박세준 씨가 동행하면서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하는 테마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이른 아침 출발, 서둘러 도착한 곳은 하동 다원 8경 중 하나인 매암차문화박물관. 삼국시대부터 차를 재배한 야생 차나무가 서식하고 있으며, 화개면 쌍계사 주변이 지방 기념물 제61호인 ‘우리나라 차 시배지’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악양·화개면 지역에는 약 2,000농가가 1,000여 ha의 면적에서 다원이나 제다의 이름을 걸고 차를 재배 하거나 만들고 있는데, 이중 160여개의 다원 가운데 하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8곳의 다원을 ‘다원 8경’이라고 부른다.



매암차문화박물관은 다원 8경 중 유일하게 악양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산기슭에 자리한 다른 다원과 달리 2만 3000여㎡의 넓은 녹차밭 한 중앙에 자리잡은 평지다원으로 유명하다. 원래는 1926년 일본 큐슈대학에서 지리산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원으로 출발했으나 매암차문화박물관 강동오 관장의 부친인故 강성호 용이 1963년 이곳을 매입, 동주농원으로 이름붙이고 1969년 매암다원을 조성했다. 특히 매암차문화박물관은 차의 제조 과정과 차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박물관으로, 지난 100년 악양 지역의 차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도 한켠에 마련되어 있다. 전시관 자체도 일제시대에 건립된 문화재이다.

신록으로 짙게 물든 지리산을 배경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녹차밭에 들어서자 강동오 관장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차는 제조방식에 따라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녹차는 찻잎을 만 즉시 찌서 효소를 죽여서 만드는 차이며, 홍차는 녹차를 완전히 발효시켜 만든 차입니다.”

강동오 관장과 함께 홍차 만들기에 나선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드넓은 차밭에서 찻잎 따기에 나섰다. 정성껏 채엽한 찻잎을 가지고 제조실로 이동한 회원들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펼쳐진 찻잎을 비비는 유념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찻잎을 강하게 비벼 상처를 주는 유념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 찻잎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산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홍차 제조과정에 있어 가장 특징적이다. 제



찾아따기



유념과정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한 우리춤 체조

조실 한견 산화과정 단계별로 놓여진 홍차의 향내도 맡아보며 체험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향긋한 차 한잔과 함께 강동오 관장이 들려주는 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매암차문화박물관 인근 식당에서 맛깔스런 밀반찬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첫 일정을 위해 하덕마을 골목길갤러리로 자리를 옮겼다. 입석리 하덕마을 골목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골목길갤러리는 여느 벽화마을과는 달리 느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 남다르다. 갤러리의 큰 줄거리는 차(茶). 만남, 차꽃, 찻잔, 달 아래서, 천년차나무처럼 차와 연관된 소재로 꾸며졌다. 그 이야기를 끌고나가는 주인공은 바로 객설(雀舌·작설의 하동 사투리) 할매로, 오랜 옛날부터 이곳 악양면의 야생 차밭에서 차나무를 일구고 그 차를 따서 달여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다스린 우리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골목길갤러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하덕마을이 고향이었던 정서운 할머니에게 바치는 헌정작 세 작품이 할머니를 추억하고 있다. 골목길 구석구석 이어지는 벽화와 조형물을 따라 걷다보니 어느새 그 속에서 살아온 하덕마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골목길갤러리에 이어 찾아간 곳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평사리 최참판댁. 박경리 작가가 1969년부터 집필한 '토지'는 무려 2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1897년 추석에 시작되어 1945년 광복까지의 시간을 이어가는 작품은 한반도를 벗어나 일본과 러시아를 넘나드는 지역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대서사시로 남았다. 소설 주인공인 서희와 길상의 어린 시절의 배경이 되는 영남의 대지주 최참판댁은 섬진강이 감싸는 하동 평사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드라마의 촬영장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림처럼 아름답고 눈에 익숙한 모습은 마치 작품 속 실제마을을 연상케한다. 소설 한 장면 한 장면을 떠올리며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구석구석을 돌아본 회원가족들은 마지막 일정을 위해 매암차문화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아름답게 펼쳐진 차밭을 배경으로 정기회원들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박세준 씨로부터 우리춤체조를 배웠다. 발품으로 피곤해진 몸을 우리춤체조로 신나게 풀어준 회원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맑고 푸른 섬진강을 따라 향기로운 차향이 함께했던 하동 테마여행. 천년을 이어온 하동명차처럼 즐거운 추억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환경과 문화가 함께 하는**

에코투어 2

지난해 8월 정기회원 테마여행 100회를 맞아 기획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15년 8월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에코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0)



7월
10일

자연의 보고 창녕 우포늪 자연생태교육

1억 4천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의 보고 우포늪의 역사와 생태, 수생식물 등을 살펴봄과 환경의 소중함, 위대한 자연의 가치를 배우는(우포늪 독 탐방, 수생식물/나무 관찰, 늪에서 신나게 놀기, 우포생태음악회)



10월
2일

하동 지리산 생태탐방

스로우시티 약양을 방문, 지리산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섬진강변 걷기로 힐링을 경험(생태해설사와 함께 지리산의 야생화·곤충, 지리산의 습지동물, 우주의 생명과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 진행, 섬진강변 음악회)



8월
14일

도심 속 생태습지 울주군 회야댐 생태습지 탐방

수생식물 성장과 연꽃 개화 시기 등에 맞춰 7월~8월 두달간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울산광역시 회야댐 생태습지 돌아보기(생태 습지에서 재배, 가공한 연잎차, 건연근 무료 제공, 연잎 차 시음회, 연잎 따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참여, 회야댐 생태음악회)



11월
13일

합천 해인사 소리길 탐방

7개의 다리,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해인사에서 홍류동계곡까지 이어진 10여 개의 체험 코스로 유명한 해인사에서 흥류 생태탐방 명소 소리길을 국립공원 생태 해설사와 탐방(소리길을 품고 있는 해인사의 역사 탐방, 무용단 우리춤 체조)



9월
11일

한려수도의 중심 사천 갯벌탐방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한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한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체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사천 갯벌 탐방(비토섬 갯벌과 다막어촌체험마을 체험, 사천갯벌 탐방로 둘러 보기, 폐철로를 활용한 다래외인갤러리 방문, 비토섬 음악회)



12월
12일

살아있는 자연사박물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

천연기념물 16여종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10여종 등 93여종의 다양한 철새가 감동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주남저수지의 대표공간인 람사르문화관과 생태학습관 탐방, 주남저수지 생태교육, 목공예 체험, 철새와 함께하는 겨울 음악회)

2015 부산문화회관
예술 아카데미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토크

프로그램

베드헨 '윙광', 동요 '고향의 봄', 섬집아기, 반달 등

Jonghw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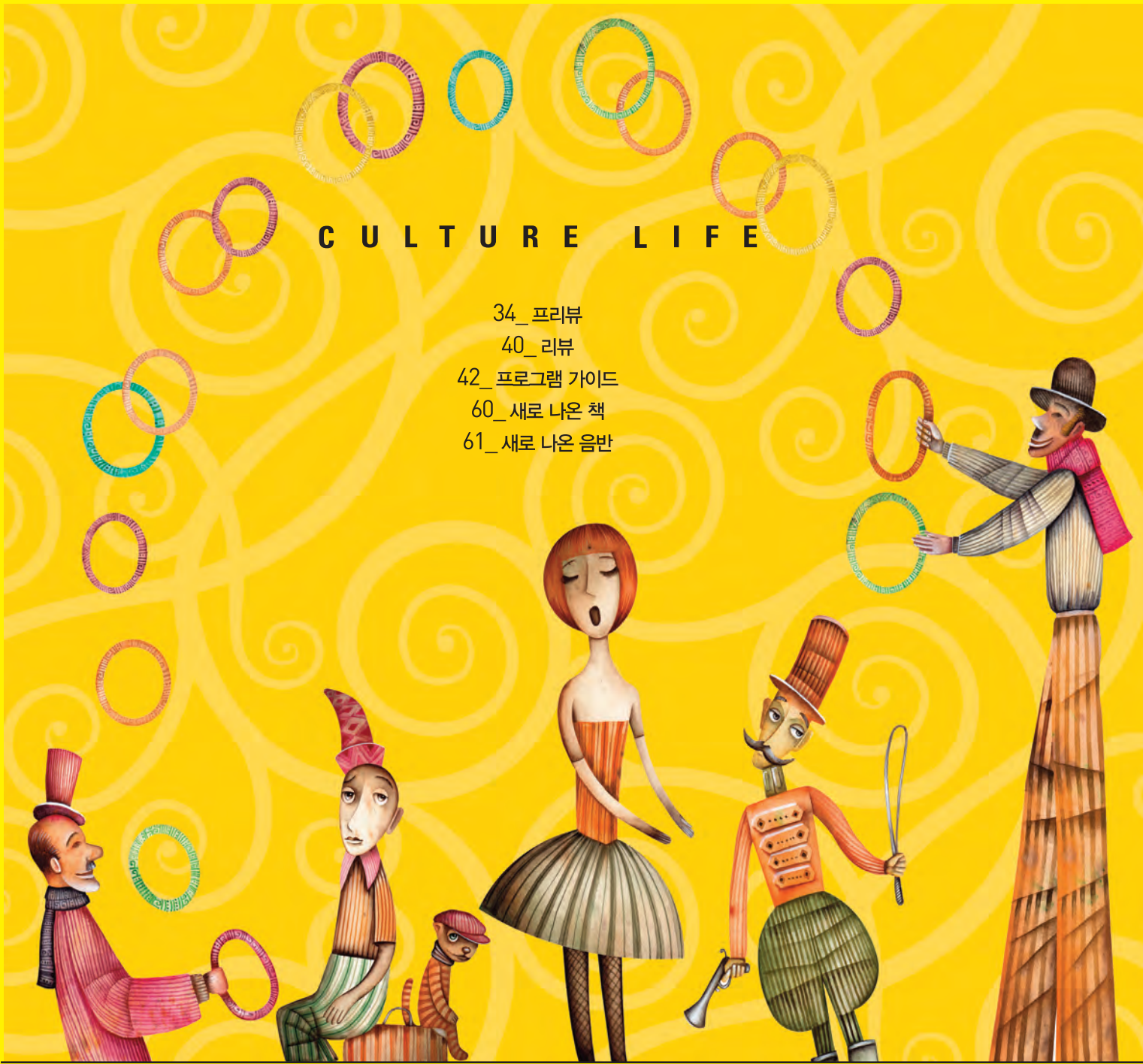
6.19(금) 8.4(화) 12.11(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CULTURE LIFE

34_ 프리뷰
 40_ 리뷰
 42_ 프로그램 가이드
 60_ 새로 나온 책
 61_ 새로 나온 음반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기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숭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음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아트부산 2015 (ART BUSAN 2015)

6.5(금) - 8(월)
벡스코 제2전시장 전관



2012년 아트쇼 부산으로 출발, 개최 3년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아트페어로 성장한 <아트부산 2015>이 6월 5일부터 8일까지 벡스코에서 막이 오른다.

16개국 201개 갤러리가 참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아트부산 2015'는 현대 미술계의 이슈메이커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펄램 갤러리와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를 비롯하여 최근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는 83개의 해외 갤러리, 국제갤러리, 갤러리 현대, 가나아트, 아라리오 갤러리 등 국내 118개 갤러리가 4,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메머드급 아트페어이다.

<아트부산 2015>은 세계 미술의 경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 외 다양한 특별전과 부대행사도 관심이 높다. 최근 현대미술 시장에서 그 가치를 존중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비전을 제시할 한국화 특별전 'Asian Eyes On Paper'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황란 작가의 에르메스 파운데이션 선정작 'Becoming Again', 창의적이고 거침없었던 작가 백남준을 돌아보는 백남준 특별전 '나의 환희는 거칠 것 없어라', 최정화, 하원 작가의 설치 특별전, 지역 작가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아트약센트' 특별전이 감동적인 예술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아트페어가 가진 다양한 확장성에 포커스를 맞춘 미술 서적 아카이브 특별전에서는 갤러리리스트이자 예술기획자로 다양한 전시를 선보여온 일본의 코지 하마다가 큐레이팅한 현대 미술서적 특별전 '아트 북 라운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의 '한국미술 전시의 역사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외 현대미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그 외 미술계의 주요 이슈와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 미술 관계자와 애호가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특별강연 프로그램 아트부산 '토크 브레이크'에서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우리 한국화의 가치를 높이고 비전을 소개하는 '한국화 패널 토크'와 '관념미술'의 저자인 로버트 몰건 교수의 '현대미술의 마케팅과 의미 상실', 전 세계 3,000명의 최상위 미술품 컬렉터의 데이터를 보유한 '래리스 리스트' 공동대표 크리스토퍼 노이의 '글로벌 아트 컬렉터', 한국미술 품가격인덱스의 장준영 박사가 소개하는 '수익성 있는 미술품 투자의 요건' 등 최근 세계 미술계의 주요 논제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다양한 미술 담론을 선보인다.

가족 관람객들을 위해 올림픽조각공원에서는 부산의 젊은 미술 연합체 예술지구P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아트벤처 프로젝트' 행사, 즉흥 무용, 비보이 갈라쇼, 음악 연주 등 다양한 퍼포먼스, 아트부산 '무비나잇'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만날 수 있다.

문의 아트부산 051-740-3530
www.artbusankorea.com

2015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6. 11(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16(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19(금)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매년 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올해도 영도문화예술회관과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에서 세차례 순회공연을 갖는다.

올해 부산시립무용단이 區문화회관 순회공연으로 선택한 작품은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발레의 명작 ‘호두까기 인형’에 ‘효녀심청’, ‘청개구리 이야기’, ‘혹부리 영감’ 등 우리의 전래동화를 결합한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클라라가 전래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면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지난 3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던 ‘춤추는 동화’ 2015년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8차례 공연이 모두 매진되기도 했다. 이번 순회공연 역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내용과 구성으로 새롭게 각색해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다.

극이 시작되고 제1장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족과 친척들은 크리스마스 파티와 선물을 준비하느라 들떠있지만 주인공 소녀는 외면한 채 컴퓨터에만 빠져 있다. 제2장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로 돌아간 그날 밤, 우연히 게임 속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만난 소녀가 낯선 사이버 세상으로 빨려들어가고, 제3장 사이버 세상에서 소녀는 효녀심청과 말 안듣는 청개구리, 혹부리 영감을 차례차례 만난다. 제4장 호두까기 인형이 안내하는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과 직접 만난 소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호두까기 인형과도 이별하게 된다. 마지막 무대인 에필로그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현실로 돌아온 소녀는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들

과 다시 한번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 속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무대에서 주인공 클라라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공주, 호두는 단원 최의옥이 맡아 가족의 소중함을 춤으로 그려낸다.

- 안무/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훈련지도/ 서정숙
- 연출/장래훈
- 출연/김공주(클라라), 최의옥(호두) 외
이정인(심청), 김병주(심봉사)
권봉정(엄마청개구리)
김진영(혹부리영감)
장모세(대장도깨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2015년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세계인의 몸짓 부산이 춤춘다

6.12(금) - 16(화)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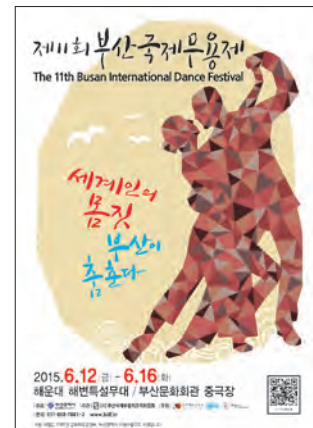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국제무용제(The 11st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오는 6월 12일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세계인의 몸짓, 부산이 춤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등 11개국 47개 무용단이 참가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비롯해 스포츠댄스, 힙합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11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지난해 무용제 열 돌 축제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올해 그 아쉬움을 풀기 위해 더욱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 참가하는 해외초청작은 세계적인 몸짓을 통해 인간적 관계와 소통의 절실함에 주목하면서 세계 무용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미에 의미와 감동을 덧붙여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또한 대부분 작품들이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AK(Art Korea)21 안무자육성공연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별된 안무가 박연정, 박재현, 이동원, 조현배의 경연무대로, 젊은 안무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공식초청공연이 펼쳐지는 해운대 해변특설무대에서는 매일 공연이 끝난 후 예술가들과 시민이 어울리며 즐기는

즉흥댄스시간을 가지면서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밖에 춤으로 암을 이겨낸 인도의 전통무용수 Ananda Shankar Jayant이 진행하는 일반인을 위한 무용강연과 공연이 6월 13일 오후 1시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열린다.



입장료 무료(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폐막축하공연
균일 1만원)

문의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www.bidf.kr)

Preview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12일(금) 오후 6: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개막식전공연 및 개막식

- 부산국악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 민선영댄스아카데미 '복소리...몸짓울림'
- 부산예술단 '타천무'
- 동아대학교 태권도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
- 12일(금)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 BIDF 공식초청공연
- 한국 아츠커뮤니케이션21 '준향-결혼식장면'
- 한국 신은주무용단 '길위에서'
- 이탈리아 Oniin Dance Compnay 'Phone'
- 중국 Suzhou Ballet Theatre 'pas de duex from Legend of Beauty'
- 일본 Cloud Nine-Yoko Koike Dance Company 'Reflected Image'
- 인도 Shankarananda Kalakshetra 'Panchatantra'
- 한국 댄스씨어터 창 '봄의 제전'
- Visual Shock Crew 'old and new'

13일(토) 오후 6: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춤아카데미

- 신정희발레단 '라인댄스 인 부산'
- 장유경무용단 '문(門)'
- 정귀인무용단 '달빛소나타'
- 신라댄스컴퍼니 '메모리'
- 뮤발레컴퍼니 '꽃의 왈츠'

13일(토)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공식초청공연

- 프랑스 Yann Lheureux Company 'Flag'
- 핀란드 Compania Kaari&Roni Martin 'Le Femme Rouge'
- 한국 조윤라발레단 '우리들의 별을 위하여'
- 스페인 entomo EA&AE 'entomo'
- 한국 블루댄스씨어터 'The Song'
- 인도 Shankarananda Kalakshetra 'Navarasa'
- 중국 Suzhou Ballet Theatre 'Swan Lake pas de duex'
- 한국 김용철 삶-무용단 '웃게하소서'
- Visual Shock Crew 'old and new'

14일(일) 오후 6: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열린춤대

- Metua Vahine Ego '타히티안댄스'
- 현대무용단 주-모 '현실'
- 청화무용단 '학춤'
- 로고현대무용단 '미끼'
- 장래훈무용단 '화살이 빛나간 백조 II'
- Art June(JDC) 'Amadeus'

14(일)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F 공식초청공연

- 프랑스 Yann Lheureux Company 'Flag'
- 스페인 entomo EA&AE 'Longfade'
- 이스라엘 YossiBerg&OdedGrafi Dance Theatre 'Mostof hte day I'm Out'
- 싱가포르 T.H.E Dance Company 'Organised Chaos'
- 체코 Prague Chamber Ballet 'Guess How many Stars Art There'
- 이탈리아 Oniin Dance Compnay 'Phone'
- 한국 현대무용단 자유 '극적이고 변덕스러운'
- 스텝아트컴퍼니 '전쟁과 평화'

15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 박연정 '바람 길'
- 박재현 '금홍아, 금홍아'
- 이동원 '분리된 인식'
- 조현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김환희 '달리기'(AK21 축하공연, 2014년 AK21 최우수단체)

16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폐막식 및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시상식

BIDF 폐막축하공연

- 체코 Prague Chamber Ballet 'Black Mirror'
- 이스라엘 YossiBerg&OdedGrafi Dance Theatre 'Heroes(part2)'
- 일본 Tokyo City Ballet 'Without words'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 아메리카대륙

6.13(토)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특별한 무대 '세계음악 디스커버리'가 6월 13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주말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인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실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팜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 음악회장을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색다른 문화체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마estro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떠나는 이번 음악여행지는 아메리카대륙.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과 우아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미국 작곡가 코플랜드(A. Copland), 윌리엄스(J. Williams), 바버(S. Barber), 번스타인(L. Bernstein), 그로페(F. Grofé), 앤더슨(L. Anderson), 멕시코 작곡가 로사스(J. Rosas), 마르케스(A. Marquez), 아르헨티나 작곡가 가르델(C. Gardel), 피아졸라(A. Piazzola) 등 아메리카대륙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KBS교향악단 단원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연소 악장(만25세)을 역임한 지휘자 오충근은 제30회 부산음악상(지휘부문),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영화 '쉘들러리스트' 테마곡을 들려줄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는 서울예고와 미국 맨하탄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

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노스체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슬로박첼버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 어메리칸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아카데미심포니와 협연무대를 가져온 양경아는 Artist international 콩쿠르 입상, Nimf 국제콩쿠르 2위 등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음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7월 25일 독일,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로 세차례 더 여행을 떠난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O 621-4577, www.bso21.com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5 환경생태이야기

6.24(수)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소리 박성희



가야금 김혜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아름다운 국악선율로 전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15 환경생태이야기'가 6월 24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환경생태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상생 2015 환경생태이야기'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의 지휘로 '자연의 소리'인 우리 국악기로 빛어내는 흥과 신명의 무대가 상생의 울림으로 펼쳐진다.

환경생태음악회를 여는 첫 곡은 국악관현악 '월광'. 이관용 시인의 시 '표정없는 달'을 소재로, 달 그림자와 달빛의 소박하고 그윽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정동희 곡 '월광'은 현악기와 관악기들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창작국악관현악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작곡가 이지영이 작, 편곡한 성악 창작곡 '시연가'로, 'Autumn Leaves'이라고도 불리는 상송 불후의 명작 '고엽'의 주제선율을 국악적인 느낌을 가미해 변형시킨 곡이다. 대중의 귀에 익은 선율에 보사노바, 삼바 등 다양한 리듬을 활용해 색다른 느낌을 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박준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송강수의 드럼 연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노래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4년 위촉곡으로, 상상과 동화의 거울나라를 흥겹고 역동적인 리듬으로 표현한 이정섭 곡 '거울나라'에 이어서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를 연주한다.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국

악 협주곡으로 재창작한 박영란 곡 '파사칼리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야금곡인 산조의 선율과 리듬을 바로크시대의 변주곡 형식인 파사칼리아와 융합해 전개시킨 곡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이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인 김혜진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한다.

마지막 무대는 경기민요 '뱃노래'의 선율과 기본 장단을 바탕으로 리듬과 속도를 다채롭게 변주시킨 국악관현악 '신밧놀이'. 이 곡은 작곡가 원일이 작곡한 전체 3악장의 국악관현악곡으로, 다국적 타악기군의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음색의 조화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5, 3143

음악으로 듣는 빅토르 위고!

하순봉 작곡가



지난 5월 9일 동래문화회관에서 <예견자 빅토르 위고>란 이색적인 작품이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발콩극단이 기획, 초연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공연된 화제작이다. 프랑스 작곡가 도미니크 리에브르가 작곡하고 연출가 세르쥬 바르뷔시아가 제작한 작품으로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와 1848년 국회에서 한 명연설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함께 배우가 위고의 대사를 모노드라마식으로 전개를 하고 사이사이에 소프라노가 노래로서 또 다른 내레이션의 역할을 하는 특이한 편성으로 되어 있다. 이날 공연을 위해 프랑스에서 직접 작곡가가 왔었고 위고역에는 제작자이자 배우 세르쥬 바르뷔시아가 일인 다역을 맡았다. 곡 중 노래는 소프라노 이연자가 함께 했다. 현대 음악에는 이런 내레이션이나 액팅이 들어가는 작품이 많이 있지만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더욱 특이한 편성으로 관심을 끌었다. 평소 현대음악이나 또 제한된 편성의 음악회에 익숙한 청중들에겐 신선한 음악회가 아니었나 싶다. 이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이 야심차게 몇 년 전부터 시도해오고

있는 공연장 상주단체사업의 일환으로서 동래문화회관의 상주단체인 극단 맥의 '2015 부산공연예술축제 맥 오프(MAC OFF) 페스티벌'의 첫 공연으로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이었다. 특히 연극과 음악 두 장르를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심찬 기획으로 여겨졌다.

빅토르 위고(1802~1885)는 레미제라블에서 보여주었듯이 당시의 절대빈곤과 무지, 사회제도, 인권과 의무교육 등 비참한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외쳐온 휴머니스트였다.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하여 국외로 추방을 당함으로 장발장처럼 19년의 망명생활을 하게 되지만 나폴레옹 3세의 몰락과 함께 위고는 공화주의 옹호자로서 민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 파리로 돌아온다. 유럽 전역이 혁명으로 물든 1848년, 그 해 9월 위고는 국회에서 당시의 시대를 진단하고 프랑스의 미래를 내다보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다. 특히 연설 내용 중 프랑스의 문화 예술부문의 예산을 줄이는 안에 대하여 위고가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것은 영혼을 파는 짓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다. 지금부터 160여 년 전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뭐가 다른가? 특히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일순위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예술인들이 바로 오버랩 되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연설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우리 대학의 방만했던 경영이 마치 예술 쪽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희생양으로 몰아붙이는 작금의 세태에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예술인들이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존심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만족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런 자존심도 무너지는 상황이다. 대학에서 예술인들은 미운 오리새끼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은 모두 문화의 강국이다. 문화가 없는 경제력만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공연을 보면서 나의 공감은 좀 격해져서 멀리 갔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 없었다. 이날 공연은 작품의 수준에 비해 관객이 적어서 아쉬웠다. 그 전날이 어버이 날이라 그 영향도 있었고 또 주말이라 많이 나들이를 갔지 않나 여겨졌다. 이날 위고역의 바르뷔시아의 연기는 역시 가장 압권이었다. 처음으로 듣는 불어대사가 웬지 어색하지가 않았다. 뉴프라이ムの 연주도 크게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변화가 많고 전환이 많은 음악을 잘 연주해 주었다. 한마디로 이날의 공연은 기획과 신선미에서 돋보이는 오랜만에 보는 양질의 공연이었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온갖 먹거리와 흥청거리는 분위기의 축제도 좋지만 이런 문화를 테마로 하는 공연위주의 축제도 풍성히 준비되어 있다. 이들이 무대에 올리는 모든 작품들이 그들의 노고와 열정이 들어 있다. 좀 더 찾아다니며 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기고 많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자. 그래야 우리가 문화의 시민과 도시가 되고 또 문화의 강국이 된다.

시대 앞에 선 햄릿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2015년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트는 '셰익스피어'였다.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400년 넘게 받아 온 셰익스피어. 2016년이 되면 서거 500년이 되는 불멸의 연극인이 셰익스피어라는 점에서, 이번 컨셉트는 '독'도 될 수 있었지만, '화'나 '독'도 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이기에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을 힘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개성적'이고 '더 발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연극적 숙명'도 함께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선보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는 개성이 강한 작품이 꽤 여럿 있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준 작품이 있어 그 인상을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한국 극단 '진일보'의 <햄릿>. 이 작품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햄릿> 혹은 외국의 <햄릿>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햄릿> 중 동랑레퍼토리의 <하멜태자>가 '서양인 햄릿'이 아닌 '한국인 햄릿'으로서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었고, 이윤택 연출의 <햄릿>은 독창적 해석과 하이브리드적인 양식 혼합으로 세계성을 담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극단 진일보의 대표인 김경익은 이윤택 <햄릿>(1

대 '햄릿'이었고, 2대 '레어티즈'였다)에서 '햄릿'을 연기했던 배우였는데, 이제 김경익은 극작가이자 연출자로 변신하여 자신만의 진일보된 <햄릿>을 선보였다. 그의 과거 경력과 융합된 <햄릿>은 이윤택의 하이브리드적인 혼합 양식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현실이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장착하는데 성공한 '개성적 햄릿'에 근접했다.

셰익스피어 자체는 작품의 국적을 따지지 않은 창작으로, 일찍부터 전 세계 공용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작품 속 배경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역사나 사회만을 겨냥한 배경은 아니었다. <햄릿> 역시 덴마크 왕가를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이지만, 덴마크만의 역사나 유럽의 정치 현실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는 볼 수 없다. 특정 시대나 구체적인 현실을 그려내는 대신, 늘 셰익스피어는 원형적인 인간 사회를 그리는 데에 치중했고, 때로는 인간의 내면 심리나 정신 체계를 파고드는 시각에 더욱 특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극단 진일보는 이러한 <햄릿>의 보편성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한 지식인의 일갈을 담은 구체성으로 변모시켰다. 죽은 선왕을 '존경 받았던' 전대의 대통령으로, 권력을 탈취한 삼촌을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현실의 정치 세력으로, 그리고 전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거트루드) 혹은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오페리아) 길항하며 괴로워했던 '셰익스피어의 여인'을 현실과 몽상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간호원으로 대체하여 지상의 인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들은 정신병동 같은 혼란한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고뇌와 번민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과, 그를 좌절하게 만드는 대항 세력을 연기해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정신병원으로 변모했고 정신병원이 곧 한국의 현실이며, 그 안에서 괴로워해야 하는 한국인들은 응당 햄릿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 통용될 수 있었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셰익스피어 <햄릿>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여기'를 진단하는 지식인의 칼날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햄릿의 선왕이 누구이고, 햄릿의 대항마인 클로디어스가 누구를 비유하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다. 더욱 눈에 띄고 통쾌했던 지점은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색으로만 간주했던 한 작품이, 우리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현미경이자 수술용 메스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분명 이러한 시도는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대담하게 부르짖는 연극인의 모험과 도전이고, 또 용기라고 하겠다. 그 용기가 햄릿에게 복수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이어주었듯, 한 연출가의 용기가 현실을 진단하는 치유자로서의 희망 역시 살려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진일보의 진일보된 연극적 도전이 그래서 더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산시민을 위한 오페라 감상 특강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국채회의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관객은 미처 알지 못했던 무대 속 이야기를 통해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6월 무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구민영, 왕기현, 테너 양승엽, 바리톤 윤오건, 베이스 김정대가 출연, 성악

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무대 위 이야기와 무대 뒤에 피스드를 통해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토스카' 등 3편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배역을 맡았던 주역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소프라노 구민영과 왕기현이 들려주는 비올레타의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해 테너 양승엽과 바리톤 윤오건의 카바라도시와 스키타의 입장에서 만나는 오페라 '토스카', 그리고 베이스 김정대가

들려주는 유쾌한 악장수 돌카마라의 '사랑의 묘약' 등 색다른 오페라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 일정**
1일 소프라노 구민영
8일 바리톤 윤오건
15일 소프라노 왕기현
22일 베이스 김정대
29일 테너 양승엽



부산장로성가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지청화 010-2554-4002

지난 1986년 11월 장로 26명으로 결성된 후 1987년 5월 창단기념공연을 가진 부산장로성가단의 16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김일연(고신대학교 교수)
- 찬조출연/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동대학교 교수), 수영로교회 관현악단

Doctors Symphonic Band
제 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닥터스심포닉밴드 010-9458-9258

예술과 더불어 음악을 인생의 한 동반자로 즐기는 의사들로 구성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의 14번째 정기연주회.

- 음악감독/정흥기
- 협연/클라리네티스트 조단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015, 3143



우리 음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의 등용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각 분야 국악 유망주들이 감칠호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 지휘/김철호

- 협연/장진업(대금, 추계예술대 4학년), 정서화(해금, 부산대 4년), 전민경(가야금, 부산대 대학원 재학), 오동욱(대금, 부산대 대학원 재학), 이주현(태평소, 부산대 대학원 재학), 박상영(타악, 원광디지털대 3학년), 전정현(타악, 부산예술대 1학년), 이현서(타악, 부산대 2학년), 강우담(타악, 부산예술대 2학년)

어린이뮤지컬 '초강력 아빠 팬티'

일 시 |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15, 11:15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상상나래 010-3094-8336



세상에서 가장 바쁜 영웅 아빠 이야기를 그린 온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뮤지컬 '초강력 아빠 팬티'.

진짜 슈퍼 히어로로 아버지로 둔 주인공 수락이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아빠 때문에 우울하다. 우리 아빠가 그냥 보통 아빠들처럼

나랑 놀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슈퍼 히어로 아빠의 힘의 원천은 바로 '팬티'. 지구를 지키느라 자기와는 놀아줄 시간이 없는 아빠가 속상한 수락이는 악당의 끈에 빠져 아빠의 팬티를 찢어버린다. 악당이 사람들을 괴롭혀도 아빠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가족은 위험에 처하는데...

가족 사이 오해를 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초강력 아빠 팬티'는 재미있는 춤과 노래, 마살야츠 퍼포먼스로 무장한 악당들의 코믹한 볼거리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출/민서진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08, 3142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한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의 레퀴엠'.

베르디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레퀴엠'은 그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이탈리아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서거 1주년을 추모하는 무대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장대한 규모와 화려한 작풍, 강렬한 어조와 풍부한 노래들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섭리와 마주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절박한 호소를 생생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해준다.

이번 무대는 창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객원지휘자 윤의중이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 바리톤 최중우가 출연한다.

- 객원지휘/윤의중(창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김충희, 바리톤 최중우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제5회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2011년 부산, 경남 지역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애니메이션음악회',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무대를 선사해왔다.

- 지휘/김병수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 협연/마서연(바이올린), 원예지(오보에), 문주연(바이올린), 조은주(피아노), 김은정(피아노), 윤재민(바이올린), 김은비(피아노)

황윤희의 춤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황윤희 010-2620-8251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김해문화의 전당 강사, 한국체육철학회 이사 및 논문심사위원으로 있는 황윤희의 개인 춤판.

제10회 흥성가무악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최우수상, 제37회 전국무용·국악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윤희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 [프로그램]**
- 바라춤(춤/황윤희)
 - 황톳길(대금/채수만, 가야금/오은영)
 - 승무(춤/황윤희), 태평무(춤/홍기태)
 - 살풀이(춤/황윤희), 한량무(춤/이광호)
 - 지전춤(춤/황윤희)
 - 특별출연/채수만(대금), 오은영(가야금), 홍기태(태평무), 이광호(한량무)
 - 해설/이경화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3테너와 함께하는 하모니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일반회원 1인 2매 10%, 특별회원 1인 4매 20% 할인)
문 의 | 우리아트 920-9545



부산, 경남의 전문연주자들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고 유능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두번째 정기연주회.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2011년 4월 소외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로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전문 민간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오페라 컴파니 음악감독, 부산칼빈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있는 테너 조윤환, 독일에서 활동하다 현재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전병호,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테너 김지호 등 세 명의 테너가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 지휘/박성은(삼십지휘자)

Dream Performance 2015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627-7992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순수무용(현대무용, 한국무용), 벨리, 재즈, 힙합, 비보잉까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을 선보이는 부산예술대학교 실용무용과 재학생 발표회 'Dream Performance 2015'.

- 출연/강주영, 김동현, 김수민, 김지은, 백소연, 백인정, 우경민, 윤해진, 이수희, 이은지, 이정민, 이현우, 장영주, 조민경, 권용빈, 서주연, 강희숙, 김핀임, 이효린, 신미순, 문상욱, 한승우, 김태영(이상 재학생), 한애분(졸업생)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 기념음악회 제3회 소리마루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소리마루합창단 010-9500-0981

합창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며, 봉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결성된 소리마루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소리의 으뜸'이라는 뜻의 '소리마루'는 합창의 장점을 살려 일상생활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화합하고 봉사하기 위해 찬양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교회, 교도소, 군부대 등 순회연주회를 통해 사랑나눔운동을 전개해온 소리마루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가곡과 유명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 CM송 등을 들려준다.

- 지휘/박연수
- 반주/서수영
- 트레이너/김미송
- 게스트/바리톤 안상철, 브릴란테 오케스트라



광복 70주년 특별공연 창작뮤지컬 평화의 영웅

일 시 | 6월 6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문화마루 070-7512-3528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창작뮤지컬 '평화의 영웅'. 전쟁의 영웅들이 남긴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데 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평화의 영웅'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 이 전쟁을 멈춰 줄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인지를 되묻는다.

- [프로그램]**
- 제1막 혼령의 노래
 - 제2막 평화의 회의
 - 제3막 한 맺힌 대한의 눈물, 그리고 한줄기 빛
 - 제4막 평화의 영웅! 한반도 통일과 지구촌 평화의 주인공
 - 작/정보경
 - 연출/박희남
 - 출연/김민우, 김하준, 이상민, 안민선, 이해민, 오원표, 박창욱, 최성우, 조수진, 장봉기 외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 & 하버드대학교 오케스트라 교류음악회

일 시 | 6월 7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칸투스 02-592-8891
 www.cantusclassic.com



지난 1908년부터 세계 각국을 투어하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온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와 인제대학교 오케스트라의 교류연주회. 1808년 3월 창단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심포니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는 매년 4차례의 정기연주회와 해외연주회를 가져오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페데리코 코르테제와 인제대학교 이병욱 교수가 지휘하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주곡 콩쿠르와 하버드 래드클리프 오케스트라 협주곡 콩쿠르 1등, 스틸버그 국제현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입상한 첼리스트 Sasha Scolnik-Brower가 협연한다.

UKO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일 시 | 6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UKO 오케스트라 624-8084
 010-3863-3087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UKO와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생상/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제3악장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1번 제3악장

도니제티/플루트 소나타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제1악장 등
 • 지휘/이동신
 • 출연/바이올린 박주미(김해 구산중 3학년), 배민경(부산예고 3학년), 오성경(부산예고 2학년), 임정민(부산예고 2학년), 첼로 배현웅(부산예중 2학년), 정혜인(부산예고 3학년), 플루트 김수민(동성초 5학년), 이금정(부산예중 2학년), 트럼펫 안종현(부산예고 3학년)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 아메리카대륙

일 시 |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O 621-4577, www.bso21.com



음악회장을 공향으로 탈바꿈시켜 여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클래식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아메리카대륙으로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월간 객석 편집장을 책임지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 미국 맨하탄 음대 및 동대학원, 메릴랜드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현재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의 협연으로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대륙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예술감독/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 해설/류태형

2015년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세계인의 몸짓, 부산이 춤춘다

일 시 | 6월 12일(금)~6월 16일(화)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무료(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폐막축하공연 균일 1만원)
 문 의 |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2, www.bidf.kr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2015년 제11회 부산국제무용제. '세계인의 몸짓, 부산이 춤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스페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체코, 핀란드, 프랑스 등 11개국 47개 무용단이 참가해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비롯해 스포츠댄스, 힙합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하는 AK(Arts Korea)21 안무자육성공연에서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젊은 안무가 박연정, 박재현,

이동원, 조현배의 열정적인 경연무대가 펼쳐진다.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12일(금) 오후 6: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DF 개막식전공연 및 개막식
 12일(금)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DF 공식초청공연
 13일(토) 오후 6: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DF 춤아카데미
 14일(일) 오후 6: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DF 열린춤대
 13일(토)~14일(일) 오후 7:3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DF 공식초청공연
 15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박연정 '바람 길' 박재현 '금홍아, 금홍아' 이동원 '분리된 인식' 조현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김환희 '달리기'(AK21 축하공연, 2014년 AK21 최우수단체)
 16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폐막식 및 AK21국제안무가육성공연 시상식 BDF 폐막축하공연

2015 한일樂會 제9회 정기연주회 단단무심(頓斷無心)

일 시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한일악회 010-4503-1175

1990년 결성된 국악동호회 한일악회의 제6회 정기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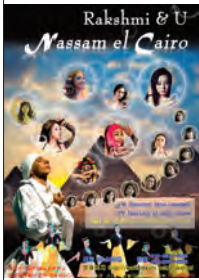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채수만의 지도로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일악회는 그동안 정기 연주회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무대, 오사카 국제민족음악제, 창원 성산아트홀 개막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 음악사랑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대금제주 '헌천수(獻天壽)'(집박/황석주, 춤/장경화) 원장현(편곡/채수만)/대금독주 '소쇄원(瀟灑園)' 사설질음시조 '태백산하', 우조질음시조 '석인이' 이준호/가야금 제주 '바람, 강' 강백천류 대금소조(장고/김예신, 춤/장경화) 등



2015 Rakshmi & U Nasaam el Cairo Show (카이로의 바람)

일 시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사)가디스 벨리댄스 부산지부
 010-3871-9149, 010-8005-8560



이집트의 유명 마스터 티처 모하메드 엘 사이드를 초청, 오리엔탈 댄스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국내 프로 벨리 댄서들과 만드는 오리엔탈 댄스쇼 'Nasaam el Cairo Show(카이로의 바람)'.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댄서들이 추는 화려한 춤으로만 알려져 있는 벨리댄스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오리엔탈 댄스의 한 부분으로 그 근원이 되는 이집트 포크로릭(민속춤)을 소개한다. 특히 마스터 모하메드 엘 사이드의 무대를 통해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오리엔탈 수피댄스, 사이디 댄스를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아라빅 리듬악기인 타블라 연주 및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유명 프로 벨리댄서들의 화려한 쇼가 함께 펼쳐진다.

부산CBS여성성가단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CBS여성성가단 010-5873-2805



1982년 5월, 음악과 찬양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부산CBS여성성가단의 13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과 CBS방송 선교 사업 등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CBS여성성가단은 그동안 LA공연, 호주, 뉴질랜드

선교찬양,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성가대제전, 나가사키 성지순례 참가, 국내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Kyrie(이현철 곡), 예수밖에는(김성국 곡), 구원열차(박지훈 곡), 봄날(박지훈 곡), 도라지꽃(박지훈 곡), 최신사택 셋째딸(전우종 곡) 등 수록
 • 지휘/이외균 • 피아노/김은경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조운환
 트럼펫터 주현, 시온성가대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인형극 '편식이의 하루'

일 시 | 6월 16일(화), 24일(수), 29일(월)
 오전 10: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60-3296

지난 2012년 6월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부산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마련한 비만예방 인형극 '편식이의 하루'. 부산광역시 10개소를 비롯해 전국 141개소가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100인 이하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의 급식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다. 인형극단 하늘이 선보이는 '편식이의 하루'는 편식이와 엄마, 짱구, 영양박사, 병균마왕 등 인형탈을 쓴 배우들이 출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노래와 춤으로 편식의 나쁜 점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한다.



Program Guide >>>

캄보디아 선교기금 마련 소프라노 김유섬 성가 독창회

일 시 | 6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3층) 1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캄보디아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기금 마련으로 열리는 특별한무대, 소프라노 김유섬 성가 독창회.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G.Rossini 국립음악원, OSIMO 아카데미 및 MANTOVA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연속 2회 1등,

이리사아미 괴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등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김유섬은 이태리 페르니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후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4년 필리핀 바가오교회 선교기금 마련 음악회를 연지 10년만에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이온 앙상블의 연주로 김경, 전병호, 김지호 등 국내 최정상 3테너와 국립중앙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유섬의 제자들, 부산중앙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특별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펼친다.

• 피아노/최영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11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의 '라 메르'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06, 3145)



인상주의 음악의 두 거장 드뷔시와 라벨의 작품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 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511회 정기연주회.

마에스트로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동양인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을 맡으면서 화제가 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인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프랑스 발레음악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인상주의 음악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드뷔시의 걸작 '라 메르'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비발디/사계
 라벨/다프니스와 클로에
 드뷔시/라 메르
 • 지휘/리 신차오 • 협연/데이비드 김(바이올린)

전문예술단체 한울림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John Leavitt-Festival Mass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울림합창단 010-9044-7576
 010-6252-0019

지난 1987년 창단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혼성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한 한울림합창단의 37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상임지휘자 김창돈이 지휘하고 동덕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앙상블 Continto 리더, 포르투나 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Mi Ka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현대작곡가 존 레빗의 축제미사를 비롯해 국내외 가곡 및 성가, 민요 등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1: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2~4



음악과 피아노를 따라 살아 온 낭만적 음악 유목민,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불멸의 거장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를 능가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토크 콘서트 두 번째 무대. 피아니스트 박종화는 일본 마이니치 음악콩쿠르 1위,

2003년 부조니 국제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 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입상 5위 및 최우수 연주자상을 수상, 큰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 박종화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월광' 1악장~3악장, 동요 '반달', '섬집아기', '고향의 봄' 등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박종화 '건반위의 이야기'는 오는 8월 4일과 12월 11일 두차례 더 열린다.

부산하모니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샌프란시스코 'New Choir' 초청 합동 연주회

일 시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하모니합창단 010-5032-1028

지난 2003년 창단된 후 부산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부산하모니합창단의 12번째 정기연주회.

폭넓은 레퍼토리와 즐거움이 있는 감동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온 부산하모니합창단은 그동안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부산국제합창제 혼성클래식부문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 등에서 수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중인 대표적인 한인합창단 'New Choir'를 초청, 합동무대로 꾸며진다.

- 지휘/김강규(부산하모니합창단 상임지휘자)
 아이린 장(뉴 콰이어 상임지휘자)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콰르텟 콘서트 Appreciation

일 시 |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희 010-4552-4106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가지꿈 음악교육연구소 소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학점은행제 외래교수, 동서대학교 대학원 피아노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희와 그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6월에 그려보는 내 피아노 스케치' 2015년 무대.

계명대학교 성악과와 프랑스 파리 고레고리오성악학교, 프랑스 Conservatoire de Massy, Ecole Normal de Musique de Paris를 졸업하고 현재 안젤리카 그레고리오합창단 지휘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에 출강중인 테너 안창섭이 특별출연한다.

- 피아노/정광민, 김미림, 강령경, 황혜진, 김승재, 박영진, 김경미
- 테너/안창섭
- 첼로/김정현

제 6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참플룻(010-4016-7477)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Glinka 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미국 Bradley Garner Master Class 등에서 수학한 플루티스트 김혜정의 제자들로 결성된 참플룻의 6번째 정기연주회.

전문연주자와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클래식부터 팝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플루트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타, 콘체르토 등 플루트의 테크닉과 연주자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 무대에서는 파퓰러, 세미클래식 등 우리 귀에 친숙하면서도 듣기 편한 곡들로 구성, 관객들에게 플루트의 매력을 선사한다.

- 플루트/이유지, 정희윤, 이나영, 남궁해윤, 백애니
- 피아노/정소희

글로리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글로리콰이어 010-5513-0314

1982년 6월 창단 이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글로리콰이어 제22회 정기연주회.

사회의 취약지역 및 소외된 지역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글로리콰이어는 2006년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부산 라이트 하우스 아동 돕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돕기 등에 기탁하면서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7080 가요와 디즈니 영화노래 모음, 추억의 팝송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합창곡과 재즈양상블의 특별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 역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탁된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15 풍류(風流) 11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일 시 |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시민무용교실을 통하여 전통무용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준 수강생들과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함께 꾸미는 2015 풍류(風流) 11기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춤 빛깔 찾기'.

[프로그램]

교방허튼춤(출연/1조 광광순, 김귀자, 김기용, 김명숙, 2조 박옥순, 유선애, 윤정하, 하순연, 3조 이경선, 조공심, 조여진, 최현숙)

남무(특별출연/최의옥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풍고(출연/1조 전성숙, 최우화, 한길랑, 황미숙, 2조 박순희, 배미옥, 이명자, 이명희, 이채영, 3조 감성희, 김숙희, 류혜숙, 박선희)

진도북(특별출연/강모세, 장영진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예술감독/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수석인무자)
- 무용지도/김동숙, 정진희(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극단 남비곰비 교통안전 명작뮤지컬 뚜뚜뽕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15, 11:2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극단 남비곰비 02-882-9001



경이로운 상상이 넘쳐나는 루이스 캐럴의 세계에 교통안전 교육을 담은 교통안전 명작뮤지컬 '뚜뚜뽕뽕!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가로운 오후, 낮잠을 자던 앨리스 앞에 토끼가 나타난다. 몰래 토끼를 쫓아 굴속으로 들어간 호기심 많은 앨리스! 눈 앞 가득 펼쳐지는 환상의 나라에서 앨리스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신비와 호기심이 가득한 앨리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즐거운 노래와 춤, 흥미진진한 게임과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작/서가영
- 연출/정상식
- 출연/양동혁, 서가영, 임보라미 외

가족뮤지컬 '태권소년 홍길동'

일 시 | 6월 25일-26일 목-금요일 오전 10:10, 11:2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키즈샘 02-6203-6593



영국에 로빈훗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홍길동이 있다. 이미 영화와 소설,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로빈훗처럼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한 '태권소년 홍길동'.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 홍길동의 활약상을 그린 '태권소년 홍길동'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와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화려한 태권도 기술과 봉술, 검술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연출/오금석

열정 넘치는 휴(休) 음악회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M&M CANTO 010-4434-6605

...

올해 대학에 입학한 성악 전공 새내기들이 마련하는 '열정 넘치는 휴(休) 무대'.

음악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성악가들의 무대로, 학구적인 레퍼토리로 최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소프라노 이예원(부산대학교), 김민정(경성대학교), 조은진(숙명여자대학교), 테너 류신기(연세대학교), 손준호(동아대학교), 한지수(연세대학교), 바리톤 고승현(계명대학교), 백재인(부산대학교), 하재영(연세대학교), 베이스 노승우(연세대학교)

- 특별출연/소프라노 신정순
- 음악감독/바리톤 고훈수



뮤지컬 '어린이난타' 전국투어

일 시 |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40, 오후 1:30, 4:00, 28일 일요일 오전 10:40, 오후 1:30

대극장

입장료 | 난타석(선물증정), VIP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피엠씨네트웍스 02-738-8289



세계를 강타한 난버벌 퍼포먼스 '난타'를 기획한 송승환의 또 하나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어린이 난타'.

세계요리경연대회에 출품할 특별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 난타 레스토랑' 요리사들과 요술국자를 찾은 온 마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난타'는

'요리'라는 친근한 소재와 신나는 난타 리듬을 통해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워준다.

특히 요리재료를 찾기 위해 바다 속부터 신비한 우주의 세계까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독특한 무대연출이 돋보이는 '어린이난타'는 대양 문어와 얼굴이 움직이는 화덕 할아범, LED 퍼포먼스와 화려한 난타 공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종원 댄스컴퍼니 스트릿댄스 뮤지컬 고스트(GHOST)

일 시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박종원 댄스컴퍼니 999-5301
010-9560-9755



흥미로운 창작 스토리에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박종원 댄스컴퍼니 스트릿댄스 뮤지컬 '고스트'.

신선한 콘테츠와 장르가 융합되는 무대 연출로 화제를 모은 '고스트'는 특히 힙합, 비보잉, 왁킹, 팝핀, 락킹, 하우스, 재즈댄스 등 모든 장르의 스트릿댄스에 현대

무용이 어우러져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3년 창단된 후 정기공연을 비롯해 처용문화제, 젊은출공 페스티벌, 울산해변무용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박종원 댄스컴퍼니는 지난 2011년 제14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안무·연출/박종원
- 대본/조은혜
- 랩퍼/Redcow, Mazn.K.Rap, J+
- 노래/뮤지컬 배우 이우진, 홍미리
- 퍼포먼스/더 플레이 레이저 퍼포먼스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 초청 김민표 작곡 발표회

일 시 | 6월 29일 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MH예술기획(010-9505-2095)



클래식음악의 보다 진보적인 음향과 악곡전개의 새로운 어법 탐구를 위해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 초청 김민표 작곡 발표회.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목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 김민표는 2006

년-2010년 Midwest Composers Symposium 참여작곡가로 활동했으며 2008년 Areon Flutes 국제작곡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현리사, 피아니스트 진승민 등 부산 출신의 젊은 해외유학파 음악가들로 결성된 현대음악양상블 누벨바그는 20세기 이후 작곡된 클래식 작품들 중 국내에서 잘 연주되지 않는 곡들을 소개하면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이다.

김문주, 김진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진희 010-9928-3733



부산대학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문주, 김진희의 듀오 무대, 김문주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김진희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비제/아이들의 놀이 작품 22
마누엘 데 파야/허무한 인생
브람스/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4b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일 시 |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조지원 010-7665-5214



현재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성악과 4학년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조지원 독창회, 제31회 고신전국음악콩쿠르 성악 고등부 2위, 제17회 마산음협전국콩쿠르 성악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지원은 2012년 동아대학교 신입생음악회, 제7회 김해시립청소년교향악단 협주곡의 밤, 제1, 2회 M.I.M.O 음악회, 2014년 여름 밤 우리들의 이야기 음악회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부 고전시대와 바로크로 이루어진 이태리가곡을 시작으로 2부 벨리니의 이태리가곡, 3부 슈베르트의 독일가곡, 4부 피아니스트의 피아노솔로, 5부 한국창작가곡, 6부 Reynaldo Hahn의 프랑스가곡, 7부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반주/신주옥 • 해설/안효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015, 314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단원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1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범수(수석지휘자)
- 협연/방보민(오보에, 부산예고 2학년), 정준용(더블베이스, 부산대 3학년), 김성원(트럼본, 부산예고 2학년), 이예서(바이올린, 경성대 졸업), 김초롱(비올라, 경성대 졸업), 김성준(클라리넷, 경성대 3학년), 김한솔(첼로, 인제대 4학년)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6월 6일 부산시립무용단

오고무(출연/박상용, 강모세, 장영진, 김윤호)
원향지무(출연/김주령)
남무(출연/김병주)
동래학춤(출연/황동하)
풍류장고(출연/김공주, 김주연, 김미란)
• 예술감독/홍경희 • 훈련지도/서정숙



6월 13일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해금 정은교, 대금 박성주, 가야금 권지현 등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재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국악앙상블 지음 Z:플과 테너 성민기, 최태근, 바리톤 박종준, 이현진으로 구성된, 정통 벨칸토 발성으로 노래하는 뉴클래식 남성4인조 앙상블 맨즈하모니(MAN'S HARMONY)의 무대.

디즈니 환상곡/전주곡, 저 바다 밑(인어공주), 벨의 노래(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미녀와 야수), 아라비안나이트(알라딘), 알라딘테마곡(알라딘), Circle of life(라이온킹), 사랑 느낄 수 있나요(라이온킹)

황의중/강마을
장은교/청노루
장은교(편곡)/아리랑연곡
나폴리 민요/오 나의 태양, 푸니쿨라 푸니쿨라, 오 사랑하는 나의 병사
뮤지컬 넘버/지금 이순간, All i ask of you

6월 20일 (사)일통고법보존회 부산지회

호적풍류(태평소/박상영, 이창효, 장재령, 엄유진 · 팽과리/이경희 · 장구/권두술 · 북/김철룡 · 징/전정현)

장구합주 '다드리'(출연/이경희, 최정욱, 권두술, 이현서, 강우담, 전정현, 박상영, 김철룡, 이창효, 장재령, 엄유진)
사물놀이(팽과리/이경희, 이현서 · 장구/권두술, 강우담 · 북/최정욱, 전정현 · 징/박상영)
판소리(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고성(출연/이경희, 최정욱, 권두술, 강우담, 이현서, 전정현, 박상영, 김철룡, 이창효, 장재령, 엄유진, 김동현)
• 해설/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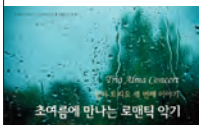
6월 2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Klang string quartet'

바이올리니스트 신민정, 이승재, 비올리스트 황보민정, 첼리스트 전지윤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결성된 Klang string quartet의 무대.
코렐리/라 폴리아
Claus-Dieter Ludwig/'해피 버스데이' 변주곡
바흐/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더블협주곡 라단조 3악장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46 제2번
브람스/헝가리무곡 제4번
Michael Mclean/Tangos & More 5. fan-dango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3일 알마트리오 세 번째 이야기 '초여름에 만나는 로맨틱 악기'



미국 유학 당시부터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과 피아니스트 윤민영이 귀국 후 첼리스트 김효진과 함께 결성한 알마트리오 두번째 무대. '영혼', '정신'이라는 뜻을 지닌 알마(Alma) 트리오는 더욱 성숙하고 생명의 힘이 살아있는 음악을 청중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로 부처진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주영, 윤민영이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 클래식기타리스트 전장수, 호른니스트 임승범과 함께 색다른 앙상블 연주를 들려준다.

10일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 창단연주회



미국 신시내티음악대학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은정, 바이올리니스트 손은혜, 첼리스트 김지혜로 결성된 신시아 피아노 트리오의 무대, 'Cincinnati(신시내티)'를 인연으로 만난 Artists라는 뜻을 지닌 신시아(CINCY-A) 피아노 트리오는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음악적 열정을 전해줄 계획이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트리오 내림나장조 작품 11
 쇼스타코비치/피아노트리오 다단조 작품 8 등

17일 아르스현악4중주단 연주회 '20C 실내악 여행'



신라대학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T.I.F 오케스트라 수석인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인 비올리스트 이성호, 신라대학교 외래교수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현악4중주단의 무대, 아르스 현악4중주단은

2001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 MBC목요음악회, 부산음악협회 주최 '실내악 축제', 부산시립미술관 초청연주회, 봉생병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한데미트/Minimax(Repertorium for Military Orchestra/Minimax), parody for string quartet
 쇼스타코비치/피아노5중주 작품 57 등
 •협연/피아니스트 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24일 BS오페스앙상블 제10회 정기연주회



부산에서 활동중인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BS 오페스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계
 슈베르트/환타지 바단조 D.940
 라흐마니노프/피아노3중주 제1번 사단조 '비가' 등
 •연주/최은주(피아노), 여주현(바이올린), 김진욱(더블베이스), 김은희(피아노), 유영옥(피아노), 이리나(바이올린), 이일세(첼로), 김윤희(플루트), 진승민(피아노), 현리사(첼로), 김민경(비올라)

2015 목요상설공연 썸리 천원의 행복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마지막 주는 수요일)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해운대문화회관 누리회원 1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4일 (주)다소니 뮤직 소사이어티 'Saxophone is...'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치고 있는 (주)다소니 뮤직 소사이어티의 무대. 색소포니스트 방준모, 박예록, 김명섭, 이지윤이 출연, 화려한 색소폰 앙상블 무대를 펼친다.

11일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2012년 새롭게 결성한 홍노경밴드 '해류뭉헤리'와 함께하는 재즈무대. '가뭄 끝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해류뭉헤리'는 이름처럼 시원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출연/홍노경(보컬), 김지원(피아노), 최창근(테너 색소폰), 유영훈(베이스기타), 김진훈(드럼)

18일 위드 앙상블 '춤을 듣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유럽에서 음악공부를 마치고 부산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와 성악가들로 구성된 위드 앙상블의 무대.
 •출연/소프라노 김상희, 한인숙, 바리톤 윤풍원, 피아니스트 박정란, 서주옥, 조은주

24일 렉터콘서트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한국전쟁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 기간동안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 시기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부산에서 널리 불려졌던 음악을 시청각적 자료(영상, 음향)와 성악가들의 노래로 펼치는 특별한 무대.
 •강사/김창욱(음악평론가)
 •연주/강소영(소프라노), 조성빈(바리톤), 박소미(피아노)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UM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UM 557-3369

4일 소프라노 이은미 '나른한 바람의 향기 속에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베를린음대 오페라 마스터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온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11일 All that Jazz~ with Japan Jazz Musicians

일본의 대표적인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모리타 료헤이와 피아니스트 무로야 레이카의 무대.

18일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love letter...'

보컬 최은아, 피아노 김상수, 베이스기타 박재훈, 드럼 곽영일, 색소폰 최창근으로 결성된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무대.



25일 musiCon International Composition concert 2015 Ⅲ

2009년에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들로 구성된 후 매년 다양한 음악적 주제로 작곡발표회를 가져온 현대음악단체 musiCon의 무대.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의 우파 국립대학 작곡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스마길로바 교수의 현대 발레작품(초연) 영상 상영과 미국 작곡가 알렉산더 시그만, 독일 작곡가 게르하르트 슈테블러, 재목 작곡가 심근수, 김보현, 이영돈 등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시대 전통을 이어가는 풍류음악회 풍류를 말하다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스페이스 움 010-4815-8401



옛 선조들의 풍류를 즐기던 방식 그대로 연주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차와 해설이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스페이스 움 풍류음악회 '풍류를 말하다'.

5월 민속악의 정수-남도음악 음식만큼이나 다양하고 멋

스러운 남도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이쟁산조, 시나위 합주, 남도민요 '육자백이', 진도 씻김굿 '길뉘음'
•출연/정선경(아쟁), 민속악회 해움

12일 곡선과 여백-絃의 울림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 가야금과 백악자장(百樂之丈) 거문고, 한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쟁 등 국악 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가야금산조, 거문고독주 '정음사', 아쟁 시나위, 진도씻김굿 '제석거리'
•출연/김아름낭(가야금), 박선미(거문고), 정선경(아쟁), 민속악회 해움

19일 음악언어와 표현의 종합예술-판소리

소리와 아니리, 발림을 섞어 긴 이야기를 연출하는 극음악 판소리를 만날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단가 '사철가', 춘향가 중 '사랑가',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민요의 향연
•출연/이선숙(소리), 김이랑(한국화가), 진정남(고수)

26일 소리로 이야기를 토포다-가야금병창

깊이있는 가야금산조와 단가, 판소리, 신민요 등 다채로운 가야금병창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단가 '명기명창', '유색황금눈', 판소리 '흥보가' 중 '사랑가', 신민요 '꽃이 피었네, 내 고향의 봄, 꽃타령' 등
•출연/신지은, 박현주, 양정아, 배지은, 신현주
•장단/박재현

영 아티스트 콘서트

일 시 | 6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혜경피아노스튜디오
010-2881-5921, 010-3815-3190



피아니스트 성민주, 이혜경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음악회.
차세대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9명의 예비 연주인들이 열정넘치는 학구적인 무대를 마련한다.
프로그램
바흐/산노니아 15 나단조 BWV.801

쇼팽/에튀드 작품 25 제3번
베토벤/32개의 변주곡 다단조 WoO 80
리스트/콘서트용 연습곡 제2번 'La Leggierzza' 등
•연주/정수아(부산교대부설초등 4학년), 김수인(홍스쿨), 이준혁(사직중 3학년), 김빛나(부산예고 1학년), 김예린(부산예고 1학년), 김연수(부산예고 2학년), 서가원(부산예고 2학년), 최주은(부산진여상 3학년), 이예진(부산예고 3학년)

음악풍경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미술평론가 이유상

일 시 | 6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의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 그들의 삶의 위안과 감동을 안겨준 음악의 시연과 함께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로, 초대손님과 관객과의 음악적 소통과 공감을 꾀한다.

6월 무대에서는 동아대학교 미술학과와 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 동서대학교 IT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현재 환경문화연합UJC 대표, 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 회장으로서 있는 미술평론가 이유상을 초청, 그의 시연을 음악 또는 영상과 함께 들어본다.

프로그램

매기의 추억, 소양강 처녀, 섬마을 선생님, 경기병 서곡 등
•진행/박원일(작곡가)

라온첼로 앙상블 Raon Cello with Young Soliste Concert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라온첼로 대표 김은주 010-3830-0802



첼리스트 김은주, 송미정의 문화생들을 중심으로 첼로가 좋아 모인 아마추어 동호인들로 결성된 라온첼로 앙상블의 무대.
'즐거움의 순 우리말인 '라온'에서 그 명칭을 가져온 '라온첼로'는 2010년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찾

아기는 연주회, 한낮의 미니연주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리시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세대 연주자를 꿈꾸는 음악도들과 함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연주로 들려준다.

•라온첼로 앙상블/양희주, 김동현, 사공유경, 김은주, 김소이, 송미경, 김하은
•피아노/서한나
•사회/장지현

무지카비바 제23회 정기연주회 시벨리우스가 전하는 북유럽 향기

일 시 | 6월 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박경희 010-2888-0292



창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1998년 창단된 무지카비바 정기연주회. 무지카비바는 그동안 바로크에서부터 고전, 낭만, 현대음악, 재즈, 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실내악 연주로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맞아 북유럽 대자연의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음악의 소리로 다시 창조해낸 시벨리우스의 작품세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시벨리우스/피아노5중주, 현악4중주
•연주/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홍기영, 최은해, 비올리스트 박주연, 첼리스트 전명희, 피아니스트 서혜리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 연주회 러시아의 밤

일 시 | 6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을 주축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의 무대.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실내악의 매력을 전해온 센토 챔버 소사이어티는 이번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엘레지 풍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프로코피에프/현악사중주 제2번 비장조 작품 92

쇼스타코비치/피아노 오중주 사단조 작품 57

• 바이올린/이은옥, 서은아, 곽예지, 강선혜, 우소라, 최지현

• 비올라/이성호, 손주연 • 첼로/이일세, 최지현

• 피아노/박정희, 김미현

2015 을숙도 해피콘서트

일 시 | 6월 9일-12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



행복한 합창 퍼레이드 '2015 을숙도 해피콘서트'.

9일 참가팀

사하구 장미여성합창단(지휘/김도형, 반주/김신정)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이승윤)

10일 참가팀

감천문화마을 산복합창단(지휘/김창돈, 반주/이연주)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반주/하신혜)

여고어울림합창단(지휘/박윤호, 반주/이용란, 송준섭)

11일 참가팀

다운합창단(지휘/손민정, 반주/김명조)

카메라타합창단(지휘/권영옥, 반주/강지영)

은하합창단(지휘/백승택, 반주/서숙지)

12일 참가팀

부산중구 시니어코러스(지휘/이은정, 반주/조은지)

글로벌라이어(지휘/이정철, 반주/박성미, 박민경)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조재혁 '음악의 발견'

일 시 | 6월 9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섬세한 연주와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음악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깊이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6월 무대.

완벽한 테크닉과 과장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조재혁은 연주

자로서 뿐만 아니라 해설가, 방송인, 대학교수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라이브 해설 연주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온 조재혁은 이번 무대에서 음악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과 작곡가들이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실연을 통해 들려준다.

[프로그램]

클레멘티/피아노 소나타

쇼팽/발라드 제1번

라벨/물의 유희 등

유주영 3rd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유주영 010-6630-5535

...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석사,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플루트4중주 '클랑',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유주영 독주회.

유주영은 그동안 두차례의 독주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2011 부산연주인시리즈, 부산챔버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피에르-옥타브 페루/3 Pieces(Oriental Pieces)
Robert Fobbes/Fantasy of Mozart's Magic Flute

메시앙/검은 티티새

라이네케/소타아 '운디네' 작품 167 등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Tango in Piazzolla

일 시 |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끌어온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6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무동 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뽀와씨 음악원 Superieur과정,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숙명여자대학교 관현악과,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과정을 졸업한 비올리스트 김가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혜경이 자신만의 탱고 스타일로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던 피아졸라의 작품을 들려준다.



광복 70주년 기념 2015 K-Classic Piano Tour

일 시 |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광복 70주년을 기념, 한국 클래식 음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작곡가 100명과 연주자 100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2015 K-Classic Piano Tour' 부산무대. K-클래식 조직위원회(위원장 탁계석)와 이혜경 중앙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Piano

On 그룹이 공동으로 마련한 'K-Classic Piano Tour'는 3월 10일 안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총 100곡의 한국 창작 클래식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한복의 민화처럼 소박한 한국적 정감을 묘사한 김국진 곡 '한국의 소리'를 비롯해 작곡가 김중욱, 민남일, 김경양, 양성남, 조선희, 강은구, 김성태의 창작곡을 피아니스트 유지현, 이혜경, 강영만, 김선형, 허혜정, 플루티스트 김영, 소프라노 김민형이 들려준다.

• 해설/탁계석(음악평론가)

제2회 부산 재즈 뮤지션 페스티벌

일 시 | 6월 12일 금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문 의 | 부산재즈협회 759-2014



재즈음악의 수준 향상과 대중화를 통해 지역음악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음악 문화교류를 통해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재즈 음악가들의 권익신장을 목표로 결성된 부산재즈협회가 마련하는 부산 재즈 뮤지션 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 일본의 유명 컨템퍼러리 재즈밴드 '윈드 잼머'와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꾸려진 부산프로젝트팀과 부산예술대학교 최창근 교수가 창단한 빅밴드 Art Ensemble of Busan, 재즈밴드 'Abyss' 등 부산지역 3개팀, 재즈의 정통성과 유럽의 서정성을 간직한 박상연 콰텟, 재즈와 클래식 만남을 주도하는 지백's 클래식 등 서울 2개 팀 등 모두 6개팀이 출연, 부산 재즈의 현주소와 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진행/재즈 보컬리스트 잠바OJ

이윤정, 박찬 2인 성가음악회

일 시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윤정 010-7315-7352
 박찬 010-8524-800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과 이태리 파르마 A. Boito 국립음악원, Tito Gobbi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이태리 Raconigi 국제콩쿠르, 이태리 Padova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이윤정과 이태리 G. Nicolini 국립음악원, Orfeo 아카데미, Ducale 아카데미 오페라, G. Donizetti 음악원 합창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송교회 호산대 지휘자, 극동방송 FM '찬양하게 하소서' 진행자로 활동 중인 바리톤 박찬이 함께하는 성가음악회.

|프로그램|
 이윤구/주의 은혜라
 유상렬/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흑인영가/Let us break bread together 등 수곡
 • 피아노/윤민화

제5회 을숙도 소년소녀 합창대축제

일 시 | 6월 13일-14일 토-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감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각 구별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2015년 무대.

|출연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감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기장리틀싱어즈, 남구소년소녀합창단, 동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사상구소년소녀합창단,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서구소년소녀합창단, 수영구소년소녀합창단, 중구아라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운소년소녀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사회/박은승

하혜린 제1회 가야금연주회 歌(노래), 夜(밤), 그리고 琴(가야금)

일 시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4: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하혜린 010-9368-2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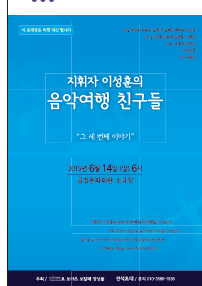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국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가야금주자 하혜린의 첫 번째 독주회. 하혜린은 제29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협주곡의 밤 협연, TV '문화속으로'에 출연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연학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부산국제중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프로그램|
 황병기/남도환상곡
 황병기/춘설
 최경철/달의 노래(위촉곡)
 최경철/가시리
 • 사회/조태원 • 25현금/최경철
 • 반주/김인균

지휘자 이성훈의 음악여행 친구들 그 세 번째 이야기

일 시 | 6월 14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성훈 010-3586-1938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합창 지도교수,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부산가톨릭합창단, 주교좌 중앙교회 세실리아 성가대, 블레나 앙상블,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동래구옥생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이성훈이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만난 음악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소프라노/정인숙, 최옥수, 김영아, 김혜진, 백영숙, 유소정
- 테너/이경춘, 이희재, 김형철, 이영찬
- 바리톤/문후원, 이양규 • 피아노/전은경, 어숙진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내 마음 속 심포, 休~~

일 시 | 6월 16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초여름밤 경쾌한 울림과 시원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내 마음 속 심포, 休~~'. 오스트리아, 이태리, 독일, 미국 등에서 유학을 마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남성성악가들의 모임인 '프리모 칸타티'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색소폰콰이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리모 칸타티는 미국 가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스터 가곡 모음과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악장수의 노래', 영화음악 명곡모음, CM송 메들리, 흘러간 추억노래 등 친숙한 곡을, 부산색소폰콰이어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 등 다양한 음색이 어우러진 색소폰 화음으로 트로트 메들리 '꽃을 든 남자', '사랑밖에 난 몰라', '내 나이가 어때서'를 들려준다.

테너 서훈하 귀국독창회

일 시 | 6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서훈하 010-4044-8857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탈리아 A. Vivaldi 국립음악원 Tradizionale 정식과정, 밀라노 Civica 시립음악원 성악 최고연주자과정 및 오페라코스를 졸업한 테너 서훈하 귀국 독창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다 귀국한 서훈하는 그동안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리골레토', '해운대 장산곡'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섰으며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Felice L'attuda 1위, Tere Dei Fieschi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토스티/슬픔, 이별의 노래, 더 이상 사랑 없으니 슈베르트/봄의 찬가, 백조의 노래, 송어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게스트/소프라노 박소현, MC 서창하
- 피아노/김지은

김경민 첼로 귀국 독주회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경민 010-4272-1018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 학사 및 전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던 첼리스트 김경민 귀국 독주회.

부산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안산팜스오케스트라 객원단원, 양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김경민은 그동안 독일 바이마르 뫼어스텐 홀솔로 및 실내악 연주, 독일 Abegg Trio 주최 하우스 콘서트 트리오 연주, 독일 Prof. Böhme 퇴직 기념 음악회 첼로 앙상블 연주, 안산팜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양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프로그램]

-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4번 작품 102
-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40
- 피아노/박진후

제42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당대 최고의 음색과 만나다 -벤젤 폭스-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국내의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 콘서트. 6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벤젤 폭스가 관객과 만난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의 음악가 집안에서 자란 벤젤 폭스는 19세에 빈국민극장 클라리넷 수석연주자로 정식 데뷔한 후 빈 라디오 심포니오케스트라를 거쳐 1993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 플랑크/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P 184
- 드뷔시/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랩소디L. 116 등

Program Guide >>>

(사)가야금병창보존회 부산지회 호국보훈의 달 호국영웅 기념공연 그 두 번째 이야기 '향수(鄉愁)'

일 시 |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가야금병창보존회 부산지회
010-3589-6878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사)가야금병창보존회 부산지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향수'.

가야금병창과 저대독주, 대금독주, 오고무, 즉흥무 등 멋과 흥이 넘치는 전통 음악, 우리춤으로 호국영웅의 희생을 위로하고 고마

움을 전한다.

[프로그램]

- 장선희 무용단 '오고무'
- 가야금병창 '사철가, 어부의 노래'
- 개량저대독주 '고금합음'
- 즉흥무 '희상' 등
- 사회/이지민
- 아코디언/송용창

한국전쟁 65주년 기념 부산시민을 위한 렉처콘서트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일 시 |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서면 소민아트센터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소민아트센터 991-2200



한국전쟁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 기간동안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 시기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부산에서 널리 불려졌던 음악을 시청각적 자료(영상, 음향)와 성악가들의 노래로 펼쳐지는 렉처콘서트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대중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군세어라 금순아', '경상도 아가씨', 가곡 '명태', '보리밭' 등 부산을 소재로, 혹은 부산에서 작곡된 음악을 비롯해 군가, 전시가요, 동요 등 다양한 곡을 소개한다.

- 강사/김창욱(음악평론가)
- 연주/강소영(소프라노), 조성빈(바리톤), 박소미(피아노)

양상블 디토 시즌9 슈베르티올로지(Schubertiology)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학생 50%, 다자녀·예술인패스 30% 할인)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인터파크 1544-1555

지난 2007년 대중들에게 실내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양상블 디토의 2015년 무대. 양상블 디토는 올해 9번째 시즌에서 '방랑자 슈베르트'를 테마로, 슈베르트의 음악을 찾아가는 여정인 동시에 항상 어디론가 나아가야 하는 디토 자신의 방랑기를 담았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크바르테트자츠 다단조 D. 703
- 슈베르트/피아노트리오 제2번 D. 929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상생 2015, 환경생태이야기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43, 3105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아
름
다
운
국
악
선
율
로
전
하
는
부
산
시
립
국
악
관
현
악
단
환
경
생
태
음
악
회
'상
생
2015,
환
경
생
태
이야기'.
오늘날 인류사회의 화두로
등
장
한
환
경
생
태
의
문
제
를
되
돌
아
보
고
자
연
과
사
람
이
공
존
하
는
상
생
의
메
시
지
를
전
달
해
온
'상
생
2015, 환
경
생
태
이야기'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
철호의 지휘로 '자연의 소리'인 우리 국악기로 빛어
는 흥과 신명의 무대가 상생의 울림으로 펼쳐진다.

프로그램
정동희/국악관현악 '월광'
박영란/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파사칼리아'
원일/국악관현악 '신밧놀이' 등

- 협연/박성희(소리), 김해진(가야금)
- 객원출연/박준현(첼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동래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제2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인 뉴프라이미 오케스트라 연주
로 마련하는 동래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6월 무대.
2006년 창단된 후 젊은 오
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
정, 힘이 넘치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로 부산, 울
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

임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계명대학교와 프랑스 발무비에 음악원 전문연주자
과정 및 실내악과정, 프랑스 에콜 노르말 최고연주
자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1위, 프랑
스 렘드(LEMPDES) 콩쿠르 클라리넷 1등 및 시장
상 수상, 스페인 국제콩쿠르 줄리안 멘덴데스 2위
를 수상한 클라리네티스트 정준화가 협연한다.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7, 8 청년이 살아야 음악이 산다

일 시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6월 무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입학, 동대학원을 졸업
하고 현재 부산신포니에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채지원과 부산대학
교 음악학과, 프랑스 베르사이유국립음악원을 졸업
하고 현재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리더로 있는 클
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의 무대로 마련된다.

- 프로그램
프랑크/소나타
멘델스존/협주곡 등
• 진행/조용연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7회 프롬나드콘서트

일 시 |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126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펴
볼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자 마
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6월 무대에서는 현시대의 담
답함을 인문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주는 노자 철학자
서강대학교 최진석 교수가 특별출연, 노자와 베토
벤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바흐/관현악모음곡 제3번 작품 1068 제2악장 'G선
상의 아리아'
하이든/현악4중주 제3번 작품 76 '황제' 제2악장 등
• 지휘, 해설/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15 부산거문고악회 특별기획콘서트시리즈 거문고 일곱 마당 '술대의 춤'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거문고악회 010-4202-3003



국악기인 거문고를 대중들
에게 널리 알리고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
한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부산거문고악회가 마
련한 특별기획콘서트시리
즈 '거문고 일곱 마당' 두 번
째 무대.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금
요일 열리는 '거문고 일곱
마당'은 전통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부산이 지닌
각 계절의 색깔을 반영한 창작위촉곡까지 다양한 레
퍼토리를 들려주며, 소극장 연주를 통해 연주자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거문고의 생생한 원음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6월에는 부산거
문고악회 단원인 김명희가 출연,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를 비롯해 경기민요 연곡, 술대곡(이해식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권은영 • 기획 · 홍보/김현경
• 연주/김명숙

미야무라 미쯔오 · 폴리포니기타듀오 한 · 일 교류연주회

일 시 | 6월 28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초중고생 5천원

문 의 | 서승완 010-5198-0074

일본 오키나와의 전통악기인 '산신' 연주자인 미야
무라 미쯔오와 테루야 카오루, 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가 함께
하는 한 · 일 교류연주회.
오키나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난 10여 년 동안 한
국과 일본을 오가며 매년 한 · 일 친선음악회를 가지
온 미야무라 미쯔오는 이번 무대에서 오키나와의 전
통음악과 그가 작곡한 창작곡, 아리랑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프란시스 클레앙/3개의 로망스
피아졸라/리브라 탱고
風よ(kazeyo), 鳳仙花(housenka) 등 수곡



소프라노 김현주 독창회

일 시 | 6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2014년 제15회 오사카 국제콩쿠르 Espoir prize, 제7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클래식타임즈상, 2015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김현주 독창회.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베르디 국립음악원 Tradizionale 과정,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현주는 오페라 '리골레토' 질다 역으로 데뷔한 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연주활동을 가져왔으며, 우크라이나심포니오케스트라, 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MBC BMPO 오케스트라, 국제신문 KPO 오케스트라, 충남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디에고 크로베타의 반주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

괴테, 음악으로 만나다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금정문화회관이 짝수달 마지막 주 화요일, 음악과 함께 문학, 건축, 미술 장르를 접목한 신 감각 콘서트로 선보이는 브런치 콘서트 6월 무대.

2015년 '음악으로 만나는 명작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4월 프랑수아 대문호 빅토르 위고에 이어 독일문학

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 괴테를 음악으로 만나다.

'세계의 문학' 기획위원이자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 진행자로 활동중인 문학평론가 허희가 진행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다솜, 바이올리니스트 정민지, 오보이스 박재원으로 결성된 브람란테 트리오가 출연, 음악을 사랑했던 괴테의 삶과 작품세계를 음악으로 들려준다.

고은사진미술관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도교 콰르텟 고음악 연주회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금(사전예약에 한함)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kr

...

지난 1988년 최정상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인 로 테라카도와 앙상블 'Royal Consort'의 리더 가오리 우에무라, 그리고 영화 '파리벨리'의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하프시코디스트 Christophe Rousset로 결성된 '도교 바로크 트리오'에서 출발, 이후 보다 다양한 앙상블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2013년 3대 하프시코디스트 조성연과 플루티스트 Jan De Winne를 영입,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교 바로크'의 무대.

[프로그램]

바흐/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마단조 BWV 1023

바흐/프랑수아 서곡 마단조 BWV 831

코렐리/바이올린과 통주저음을 위한 소나타 작품 5 제12번 등

Play 연극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 시 | 4월 2일(목)~7월 5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가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세대별 커플의 사랑을 따뜻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15년 무대.

세대를 아우르는 다섯 가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옴니버스 연극으로, 황혼을 맞이한 동네 오빠, 동생의 애잔한 사랑이야기에서부터 전라도 부부의 거칠지만 진한 사랑, 짝사랑하는 과 선배를 유혹하는 깜찍한 여자후배, 친구 피로연에 갔다가 돌이 남게된 오래된 두 친구의 이야기까지 종합선물세트같은 다양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예술감독/위성신 • 연출/신기섭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일 시 | 4월 10일(금)~6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레몬트리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 626-3703

...



꽃 피는 봄과 함께 돌아온 연극 '우리가 사랑할 때' 다섯 번째 앵콜무대.

지난해 초연무대를 가진 후 네차례 앵콜공연을 가졌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연애 전문매거진 에디터 선영과 선영의 언니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미영, 선영의 소꿉친구이자 연인인 동욱, 미

영과의 뜨거운 연애를 펼치는 연하남 춘배의 유쾌한 사랑이야기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랑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작품이다.

공연창작집단 팻브릿지의 상임 연출가이자 원작자인 김민우가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신인배우들이 함께하는 더블캐스트 무대로, 기존 배우들의 관록있는 감성연기와 신인배우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연기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출연/이다혜, 김미미, 유하나, 변은지, 조현규, 이동욱, 원이현, 박강철

연극 수상한 흥신소

일 시 | 4월 16일(목)~6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가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

'귀신이 보이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휴머니즘 가득한 서사로 풀어낸 코미디극 '수상한 흥신소'는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다.

뮤지컬컴퍼니 기리프로젝트 레퍼토리 대방출 바보미소

일 시 | 5월 14일(목)~6월 28일(일) 목-금요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월-수요일 공연없음) 청춘니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청춘니비아트홀 988-7721

...

오지마를 봉양골을 배경으로, 조금 모자라지만 가슴 따뜻한 소녀 미소를 중심으로 동화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연극 '바보미소'.

연극 **도둑과 연인**(부제: 사랑 특특특!)

일 시 | 5월 15일(금)~6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cafe.naver.com/ggtheater



학습지 교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혜교와 그녀에게 빌붙어 사는 남자친구 성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에 우연히 도둑질 하러 들어왔다가 그들의 사랑싸움에 끼여버린 어리숙한 도둑, 이들 세명이 펼치는 가슴 따뜻한 로맨틱 코미극 '도둑과 연인'.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도둑과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설쳐대는 연인의 어설피고 아픈 삶을 웃음 가득한 해학으로 승화시켜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연출/전상배 • 기획/황미애
- 출연/김지희, 박헌민, 곽도영, 이준협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일 시 | 5월 21일(목)~7월 2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이다처럼 달콤하고 톡 쏘는 로맨틱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 장미를 좋아하는 소심한 성격의 노종각 진성, 그 앞에 나타난 소원을 들어주는 여자 진희, 그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으로든 변할 수 있는 마법같은 상황이 펼쳐

지는데... 과연 진성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7가지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는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음악과 풍성한 볼거리로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

- 작·연출/이원준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일 시 | 5월 29일(금)~6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4만원 (3인 이상 40% 할인, 학생 50% 할인)
 문 의 | ㈜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난중일기에 찢겨진 페이지에서 착안,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미스터리를 기발한 발상의 코미디로 재구성한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 아닌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영웅을 기다리며'는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순신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일본 무사에게 사로잡혀 3일간 동행하는 내용으로, 배고프면 서럽고 열 받으면 욱도 잘하는 인간적인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영웅을 기다리며'는 2008년 창작팩토리 최우수상, 2012년 창작뮤지컬 지원작에 선정된 바 있다.

연극 **갈매기**

일 시 | 5월 30일(토)~6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연희단거리패 대표 배우인 김소희가 연출로 데뷔해 화제를 모은 연극 '갈매기'. 매년 해외극 페스티벌을 개최해 '해외극의 우리극적 수용'에 앞장서온 연희단거리패가 2015년 선택한 작가 안톤 체홉의 첫 번째 작품인 '갈매기'는 셰익스피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 중 하나로 현실과 꿈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작/안톤 체홉 • 번역/윤광진
- 연출/김소희
- 출연/윤정선, 황혜림, 이원희, 조승희, 노성동, 이민아, 이동준, 도창선, 황유진, 조우현

극단 맥 **꼭두**

일 시 | 6월 4일~5일 목~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극단맥 625-2117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와 우리의 전통신앙 중 가신신앙을 축으로 한국인의 내세관, 죽음을 관을 전통연희 양식으로 풀어낸 극단 맥 '꼭두'. 초시간적인 주제를 전통적인 색채로 각색해 이승과 저승, 산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장소에 동시에 공존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특이한 내세관을 통해 가족이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본다.

- 작·연출/이정남
- 안무/홍순아
- 음악/전현미
- 출연/심미란, 이혜영, 조영미, 김병경, 박규한, 이희선, 김명희, 이태규



감성뮤지컬 **Thank U**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7일 일요일 오후 2: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봉사활동을 통해 삶을 정리하는 안과 의사 혁기와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레지던트 지원, 시력을 잃어가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지혜와 각자의 사연을 간직한 고망미를 사람들이 '눈'이라는 영혼의 창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며 세상에 감사하게 된다는 내용의 창작뮤지컬 'Thank U'. 창작뮤지컬 '기쁜 우리 젊은날'과 '젬블 인 러브', '보잉보잉' 등에서 음악과 연출을 맡았던 알제이컴퍼니 (RJCompany) 정은미 대표가 각본과 연출, 음악을 맡은 이번 무대는 각박하고 메마른 일상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기적을 선물한다.



연극 팝콘

일 시 | 6월 5일(금)~8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 1600-0316

...



가난하지만 유쾌한 연극배우들의 다양한 일상을 그린 B급 코미디극 '팝콘'.

현실과 마주한 가난한 두 연극배우 칠성과 연제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연제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온다. 결국 연제의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지금은 성공한 한류스타이자 연제의 첫사랑인 스파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가 찍고 있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연극 '팝콘'은 어느 청춘들처럼 막막한 현실세계와 마주한 연극배우들의 고군분투기를 웃음과 해학으로 유쾌하게 그려낸다.

• 작 · 연출/이성욱

가족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일 시 |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 오후
4:00, 6월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803-5355

...

개성이 다른 당나귀, 고양이, 강아지, 암탉 등 네 마리 동물들이 꿈을 찾아 떠나는 모험담을 그린 가족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아날로그 개그패밀리 콘서트 '칠득이'

일 시 | 6월 6일 토요일 오후 3:00, 5:00, 7:00,
7일 일요일 오후 5: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3만원

A석 2만 5천원

문 의 | ㈜예정 463-1185

...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 송영길, 류근지, 신종영, 박성호, 변기수, 장범균, 이종훈이 전하는 생생한 라이브 개그쇼. 즉흥적인 애드립과 TV에서는 볼 수 없는 개그와 소재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웃음 핵폭탄을 선사한다.

어린이뮤지컬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트랜스웨폰을 찾아라

일 시 | 6월 6일~7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5천원

A석 3만 5천원

문 의 | ES생활문화 070-8654-0377

...

EBS 어린이 애니메이션 1위, 동 시간대 시청률 1위, 어린이채널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최강전사 미니특공대-트랜스웨폰을 찾아라'.

가족뮤지컬 말괄량이 빨강 머리 앤

일 시 | 6월 10일~11일 수-목요일 오전 10:15, 11:2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2일 금요일 오전 10:15,

11:20 부산민주공원 25일~26일, 목-금요일

오전 10:15, 11:20 북구문화방송센터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극단 키즈섬 02-6203-6593

...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빨강 머리 앤'을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부두연극단 창단 30주년 100회 기념공연 여배우 열전 시리즈(2)

도시를 멀리 떠나며...

(원제:머나먼 아공당주)

일 시 | 6월 15일(월)~30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

문 의 | 액터스소극장 611-6616

...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주목을 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극작가 장 폴 벤젤의 '머나먼 아공당주'를 원작으로 한 연극 '도시를 멀리 떠나며...'.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후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살아가는 노부부의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 노인들이 겪는 소외감과 불안감,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도시를 멀리 떠나며...'는 액터스소극장 시절 부두연극단 대표를 맡았던 배우 우명희와 하현관이 극중 노부부역을 맡아 가슴 찡한 감동을 안겨준다.

• 재구성 · 연출/이성규

뮤지컬 '캣츠' 내한 앙코르 공연

일 시 | 6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젤리클럭,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 의 | ㈜WSM 1566-5490

...



2014년 전석 매진의 신화, 오리지널의 감동을 만나볼 수 있는 뮤지컬 '캣츠' 내한 앙코르 무대.

1981년 런던 뉴런던 시어터에서 초연 된 이후 전 세계 30여개국, 300여개가 넘는 도시에서 14개국 언어로 상연된 '캣츠'는 환상적인 무대, 고양이와 흡사한 분

장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댄스와 주옥 같은 뮤지컬 넘버들로 전 세계 7,300만명 이상을 감동시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30여년 동안 '캣츠'를 끌고 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5 코코몽 뮤지컬 타임머신 대소동

일 시 |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4만 5천원, 2층 3만 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

2010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소시지 완송이 코코몽, 계란 토끼 아로미, 당근 당나귀 케로 등 냉장고 속 음식들이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 어린이들의 환경지킴이로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5 코코몽 뮤지컬 타임머신 대소동'.

2015 문화가 있는 날 '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전통예술연희극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

일 시 | 6월 24일 수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이자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 '택견'과 우리의 소리 '아리랑'을 융합해 만든 창작연희극 '아리랑, 택견을 만나다'.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일 시 | 6월 26일 **금요일** 오후 4:00,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803-5355

...

제페트 할아버지의 손에서 태어난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와 피노키오를 향한 제페트 할아버지의 가슴 짙한 감동이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버블J의 언빌리 버블쇼

일 시 |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6월 5일까지 예매시 균일 1만원,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5

...

버블아티스트 버블J가 펼치는 환상적인 버블쇼 무대로 국내 최초 풍선맨의 대형 벌룬쇼와 컬러버블쇼, 메가 버블쇼, 미술쇼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기한 무대가 펼쳐진다.

Event 행사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무지크바움에서 2013년부터 매월 진행중인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1부 독일레퀴엠, 유카페카 사라스테, 쾰른 서부독일 방송오케스트라, 2014, 포플레이, 이브닝 오브 포플레이, 1994

2부 조슈아 레드맨, 브래드 멜다우, 재즈 인 마르시악, 2011, 토니베넷, 레이디가가, 칩치카 라 이브, 2014

• 기획 및 진행 / 손명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152회 시마당 시낭송회

일 시 | 6월 30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Dancing 무용

2015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일 시 |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6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607-3107, 3154

...



부산시립무용단이 매년 지역 주민들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마련해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클라라와 호두이야기'.

발레의 명작 '호두까기인형'에 '효녀심청', '청개구리 이야기', '혹부리 영감' 등 우리의 전래동화를 재구성한 '클라라와 호두이야기'는 클라라가 전래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면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술감독/홍경희(수석안무자)

• 훈련지도/서정숙

• 연출/장래훈

• 출연/김공주(클라라), 최익호(호두) 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Display 전시

아트 사파리展

일 시 | 3월 3일(화)~6월 28일(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엔터테인먼트등 전망대

문 의 | 롯데갤러리 부산점 678-2610

조각예술에서 찾는 감성공간

일 시 | 4월 1일(수)~6월 28일(일) **금련산갤러리**

문 의 | 금련산갤러리 740-4273

남도미술 200년 탄생과 열려진 지평

일 시 | 4월 3일(금)~7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우리 동네 우리 집

일 시 | 4월 10일(금)~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4205~7

이영섭 조각전

일 시 | 4월 20일(월)~6월 20일(토) **갤러리 예동**

문 의 | 갤러리 예동 781-5337

세계로의 여행-독일현대미술

일 시 | 4월 30(목)~7월 1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사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오드리 햅번, 뷰티 비욘드 뷰티

일 시 | 5월 9일(토)~9월 6일(일)

영화의전당 특설전시관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대학(원)생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생 이하 6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갤러리 시선 개관 초대전 **9인의 감성&시선**

일 시 | 5월 13일(수)~6월 12일(금) **갤러리 시선**

문 의 | 갤러리 시선 254-7750

...

• 참여작가/김미숙, 류명렬, 류성하, 문철암, 박명수, 박성열, 유진재, 임상진, 조영숙

윤서희 개인전 **‘사랑의 향기’展**

일 시 | 5월 27일(수)~6월 22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물이 되는 꿈’ 두번째 이야기 **시간 여행**

일 시 | 6월 1일(월)~6월 13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010-4815-8401

모기홍 초대전 **‘점으로 이룬 산’**

일 시 | 6월 11일(목)~7월 10일(금) **갤러리 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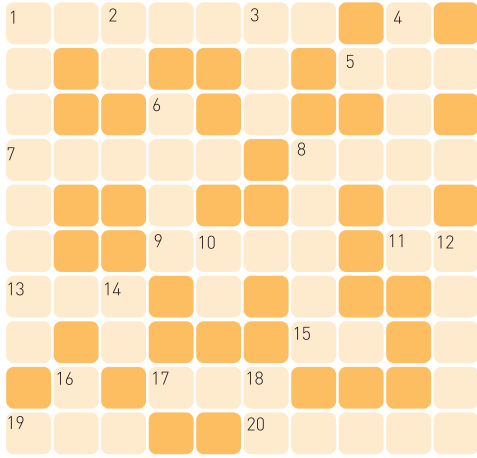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그래픽아티스트 김문석 **‘MIX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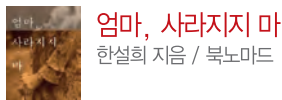
일 시 | 6월 15일(월)~6월 30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010-4815-840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국제적인 무용축제. 올해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 해변특설무대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개최된다.
- 놀이의 마지막 과정에서 덕담으로 기원하는 고사문서(告祀文書)의 순우리말. 무언가를 빈다는 뜻의 명사형으로 비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 하더라'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대중적인 음악 희극으로, 경극이라고 불린다. 이탈리아어로 '작은 오페라'라는 의미로 오페라에 비해 적은 규모로 대사와 노래, 무용 등이 섞인 가벼운 희극 속에 통속적인 노래와 왈츠, 폴카, 칸캉 등의 춤을 넣은 오락성이 풍부한 음악극이다. 대표적으로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요한 슈트라우스의 '집시남작', '박쥐' 등이 있다.
-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 2012년 1편이 개봉되어 사상 최고 속도로 세계 흥행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많은 신기록을 세웠으며 2015년 4월 우리나라 배우 수현이 등장하는 2편이 개봉되었다.
-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고대 그리스에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nanos)에서 유래되었다. 100미터 라고 하면 10억분의 1m의 길이(10-9m) 즉, 머리카락의 1만분의 1이 되는 초미세의 세계가 된다.
- 중동(서아시아)의 지중해 동쪽 해안에 면하는 아랍국가. 1922년 시리아에 편입되면서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26년 시리아에서 분리되어 프랑스로부터 자치권을 얻었고, 1944년 1월 완전히 독립했다. 수도 베이루트.
- 현대 프랑스 음악의 거장. 대표적으로 교향시 '스페인 랩소디', 발레모음곡 '다프니스와 클로에', '라 바스', 무곡 '볼레로' 등이 있다.
- 고려시대의 문인, 문인. 명문장가로 그가 지은 시풍(詩風)은 당대를 풍미했으며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陳情表)로 격퇴하기도 했다. 저서에 '동국이상국집', '국산생전'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 '동명왕편(東明王篇)' 등이 있다.
- '인상주의 음악'을 칭인한 드뷔시의 걸작. 일본 화가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채색목판화 '카나가와의 큰 파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작품으로, 바다에 대한 동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⑩ 성모마리아를 칭송하는 노래로 슈베르트, 구노의 작품이 유명하다.

세로열쇠

- 아르헨티나의 수도.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세 도시 중 하나이다.
-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문화재. 001호는 송례문이다.
- 제주시 용연(龍淵) 부근의 바닷가에 옴uri의 형상을 하고 있는 10m 높이의 바위로, 제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이다. 화산용암이 바닷가에 이르러 식어 해식(海蝕)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용이 승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 사랑과 결혼, 가족문제라는 보편적인 소재 속에 농노제 붕괴에서 러시아 혁명에 이르는 역사적 과도기에 놓인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의 풍속과 내면생활을 150명이 넘는 등장인물과 사실적인 묘사, 엄청난 길이와 힘으로 반영했다.
-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현악을 연주하는 단체. 10여 명으로 편성된 실내관현악단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편성된 대악단까지 포함되며, 100명 인원으로 편성된 것은 교향악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향수(鄉愁), 향수병(homesickness), 과거에 대한 동경, 회고의 정을 뜻하는 말. 1688년 오스트리아의 의학도 요하네스 호퍼가 산 속에 주둔한 스위스 용병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어 nostos(return)와 algos(pain)를 합쳐 만든 말이다.
-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자 사서(四書)의 하나. 고대 중국의 사상이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으로, 공자와 그 제자와의 문답을 주로 하고, 공자의 발언과 행적, 그리고 고제(高弟)의 발언 등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간결하고도 함축성있게 기재되어 있다.
- 도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나 깊은 곳을 일컫는 말.
- 10대 시절부터 '아시아의 별로 K팝의 선두 주자'였던 가수.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했으며, 2009년에는 미국에 진출해 한국 가수로 최초로 빌보드 200 127위에 진입하기도 했다.

지난호 정답

오	정	해	고	북	한	산
페	태	릉	선	수	춘	세
라			지	방		이
의	무	크	춘	향	전	스
유	재	하		곤	쟁	피
령	마		고	중	과	어
	페	드	라		태	평
이		알		곡	우	화
차	두	리		정	조	보
돈			차	두	리	레
						퀴
						엠

5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인석(수영구 광남로) 박수흠(서구 대티로) 박용수(해운대구 장산로) 정은희(사상구 사상로) 형정민(동래구 총렬대로)	큰집	석형택(수영구 광안해변로) 신영민(남구 수영로) 이경수(영도구 절영로) 정미애(해운대구 대천로) 하영관(부산진구 냉정로)
문학동네	김은아(기장군 차성로) 박동훈(사하구 과정로) 신동진(금정구 체육공원로) 유지혜(북구 산성로) 조현순(남구 유엔로)	조은극장	김예은(사상구 냉정로) 김지훈(금정구 개좌로) 윤추희(서구 구덕로) 조윤희(동래구 복천로) 최종우(동래구 금강로)
옐로인 플라워	김광열(부산진구 양지로) 꽃다발 증정권	우민지(부산진구 엄광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시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분을 추천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남해 유배지 답사기

박진욱 지음 / 알마 / 424p / 1만 9천 500원

경남 남해는 조선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었다. 동쪽으로 거제가, 북쪽으로 삼천포가 보인다. 서쪽에는 전라좌수영이 자리잡은 여수로 가는 길이 있다. 뒤에는 높은 산이 버티고 앞은 아산이 둥글게 막고 있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 항구였다. 미조항에는 조선 최대의 해군기지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해는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예로부터 유배지로 '각광' 받았던 곳이다. 남해로 귀양 온 수많은 유배객들 중 누군가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주류 사회로 복귀했고, 또 누군가는 서포 김만중처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유배객들은 남해 곳곳에 그들의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책은 유배객들이 살았던 집과 잠시 머물렀던 공간들을 돌아보며 전해내려 오는 비사와 그 배경을 소개한다. 김만중이 귀양살이를 할 때 <주자어류> 전질을 빌려다 읽었다는 남해향교와 귀양살이를 했던 노도, 고려 말 성리학자인 백이정을 추모하는 사당인 난곡사, 미륵이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미조항, 최영 장군의 넋을 위로한 무민사 등 유배와 관련되거나 남해만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찾아 옛 기록들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냈다.



❖ 포구를 건다

동길산 지음, 조강제 사진 / 예리원 / 280p / 1만 4천 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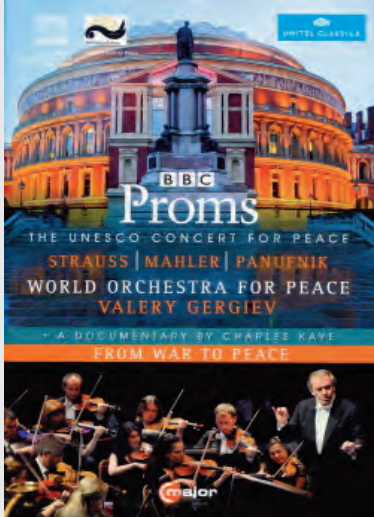
물과 물의 경계에서 더 나아갈 곳 없어 마음만 수평선 너머로 보내는 땅의 끝, 포구. 떠밀리고 밀려 이제 마지막으로 닿은 곳. 그래서 포구는 그리움이 있는 공간이고 회한과 사색의 시간이다. “모래는 얼마큼 밀려와야 섬이 되나. 흙은 얼마큼 씻겨 와야 섬이 되나. 나는 얼마큼 밀리고 얼마큼 씻겨야 내 안에 섬 하나를 우뚝 쌓나.” 포구에서 무심코 만나는 대상을 시인 동길산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대상이 말을 걸고 있는 방식을 쉽게 풀어 독자에게 톡 던져 놓는다. 암남포구가 있는 송도에서는 젊은 날 구름다리에서의 기억을 더듬으며 “불안한 구름다리 이제 콘크리트 다리가 되어 흔들어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하던 그때가 좋는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좋는가”라고 묻는다. 아니 독자 스스로 자문하게 톡 던져 놓는다. 포토그래퍼 조강제의 사진에는 여백이 많다. 그의 프레임에는 대부분 사람이 있다.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몸짓이 있다. 몸짓이 프레임에 이끌어 가기에 그의 사진에는 언제나 서정성과 스토리텔링이 좋다. 일상을 의미있게 캡처하는 시인과 일상을 낯설게 스토리텔링하는 사진가의 작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여행에세이다.



❖ 엄마, 사라지지 마

한설희 지음 / 북노마드 / 288p / 1만 5천 800원

엄마라는 말처럼 많은 이야기가 담긴 단어가 있을까. 작가 한설희는 2010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엄마마저 사라질까 하는 조바심에 엄마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다. 작가 한설희는 매일매일 용인 자신의 집과 서울 어머니의 집을 오가며 출근하듯 사진을 찍었다. 눈을 뜰 기력조차 없어 누워서 잠만 자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급했다.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찍은 사진들이다. 67세 딸이 사진으로 남긴 91세 엄마의 기록은 2011년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신진작가에게 주는 상인 '온빛사진상' 수상과 2012년 봄 '노모(老母)'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2년 11월, 전시 때 아쉽게 빠졌던 미공개 사진들과 출간 직전까지 찍은 사진을 더해 <엄마, 사라지지 마>가 출간되었다. 나이 들과 죽음에 대한 이리얼한 직시(直視)는 2015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2년 가을 이후부터 2015년 봄까지, 엄마의 날들이 추가로 담겼다. 농도 깊은 흑백사진과 짙막한 글로 이루어진 이 포토 에세이는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 안의 '어머니'를 강하게 환기하며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는 책이 될 것이다.



❖ BBC 프롬스 'THE UNESCO CONCERT FOR PEACE' (730108, DVD)

말러 교향곡 6번/R. 슈트라우스 '그림자 없는 여인' 환상곡 외
발레리 게르기예프(지휘)/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4년 BBC 프롬스 실황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World Orchestra for Peace)는 '음악의 특별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목표로 거장 게오르크 솔티가 지난 1995년 결성했던 비상설 오케스트라로, 솔티 사망 이후로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그의 유지를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번 영상물은 지난 2014년 7월 BBC 프롬스 기간 중에 로얄 알버트 홀에서 펼쳐졌었던 이들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R. 슈트라우스가 솔티의 요청으로 자신의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했던 심포닉 판타지아, 아브라함 유래의 세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평화적 공존을 다룬, 여류 작곡가 루크나 파누프닉의 '평화를 향한 3가지 길', 그리고 지난 2010년 프롬스 기간 중에 연주해서 호평을 받았던 말러의 교향곡 4, 5번(앞서 C Major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됨)에 이어 그의 교향곡 6번이 이날 함께 연주되었다.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결성 20주년을 기념하는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인 'From War to Peace'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 마르코 체카토 '보케리니'(ZZT360)

보케리니 첼로 협주곡 7번 G.480, 기타 5중주 7번 G.451, 플루트 5중주 G.436,
디베르티멘토 G.463

마르코 체카토(첼로)/아카데미아 오토보니

▶ 비발디 첼로 소나타의 주인공인 첼리스트 마르코 체카토의 새로운 음반

2014년 지그재그 레이블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온 비발디 첼로 소나타(ZZT 338)의 주인공 마르코 체카토의 새로운 음반이 출시됐다. 디아파종 황금상,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등 발매 직후 평단의 찬사가 쏟아졌던 비발디의 성공을 이어갈 후속 녹음은 보케리니.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을 중심으로 기타와 플루트5중주 중 보케리니의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에 초점을 맞췄다. 특유의 우아하고 시적인 해석으로 전작에 이어 또 한번 디아파종 황금상을 수상하며 그 높은 예술성을 입증한 명연이다.



❖ 파벨 하스 사중주단 '스메타나'(SU 4172-2)

스메타나 현악4중주 1번 '내 삶으로부터', 2번
파벨 하스 사중주단

▶ 우리시대 최고의 사중주단으로 떠오른 파벨 하스 사중주단의 스메타나 사중주

명실공히 우리시대 최고의 사중주단으로 떠오른 파벨 하스 사중주단이 드디어 체코 사중주 전통의 출발점인 스메타나 사중주를 녹음했다. 스메타나가 1876년과 1883년에 작곡한 두 곡의 현악 사중주는 '내 삶으로부터'란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각 장애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좌절과 고통, 체념과 인정 등 자신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고백한 일기장과의 같은 곡이다. 파벨 하스 사중주단은 치밀한 앙상블과 교향악적인 스케일, 날카로운 어택과 내밀한 표현이 엇갈리는 참신한 해석을 통해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냈다.

NEWS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공연' 참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이과수국제음악제의 초청을 받아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과수국제음악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페스티벌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올해 음악제에서는 중국, 미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코스타리카, 한국 등 전 세계를 대표해 참가한 5대륙 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인 이과수폭포와 미시오네스슌에서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과수국제음악제는 5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일 동안 각 지역의 최상급 호텔, La Aripuca, the Puerto Iguazú 원형극장, 그리고 2,500석을 보유한 웅장한 Espacio Takuapu에서 무료로 공연이 열리며, 30일 이과수국립공원 안 셰라톤호텔 garden에서 열리는 그랜드 피날레 콘서트와 함께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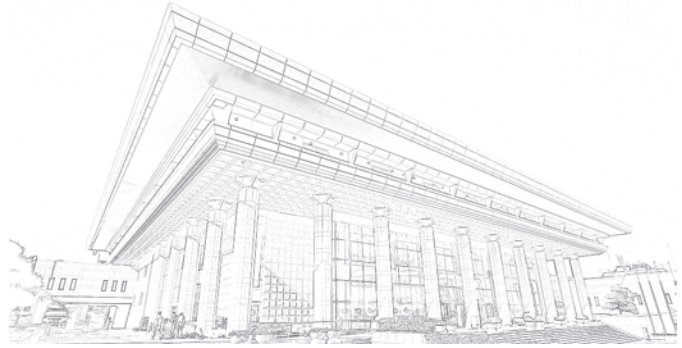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29일 수석지휘자 전상철의 지휘로 새야새야 파랑새야, 아리랑, 추천가, 경북궁타령 등 신명 넘치는 전통민요로 우리의 멋과 신명을 전한다. 특히 30일 그랜드 피날레 콘서트에서는 이과수국제음악제의 특별요청으로 추천가(안무-부채춤)를 단독으로 연주, 한국의미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합아이디 변경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여성회관, 부산여성문화회관, 부산기업솔루션 등 4개 홈페이지가 부산시 대표 웹사이트(www.busan.go.kr)로 통합됩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시던 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신규 통합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의 통합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으시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산문화회관 아이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기존 '내 자료' 또한 보관할 수 없으니 2015년 말까지 통합아이디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2기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6월 1일~6월 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부산시립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6월 8일~6월 12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올해 처음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에서 4월 한달간 1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6월 2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은 전국의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 함양, 감수성 및 소통능력 제고를 돕는 문화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지난 1월, 올해 처음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공모에 도전, 부산시립극단의 청소년 연극 체험 프로그램 '연극아! 같이 놀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즐거운 동요 여행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1기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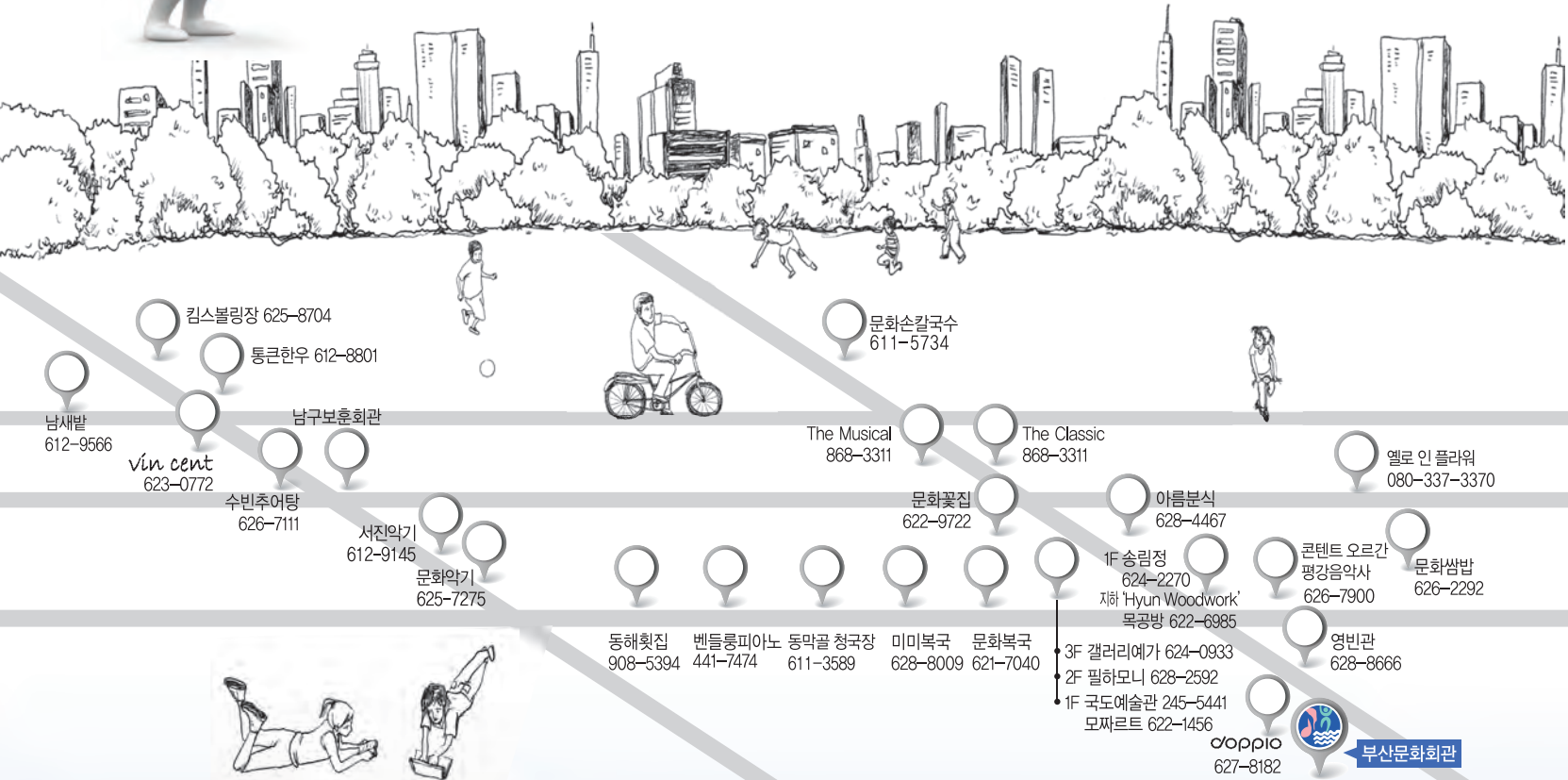
부산시립극단의 '연극아! 같이 놀자!'는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극 체험의 기회를 통해 자아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게임, 감상 등의 연극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1기에서는 중·고등학생 40명이 참가해 연극체험을 즐겼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진행하는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은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동요와 샌드아트, 전통 놀이, 북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 지휘사의 지도로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과서 동요여행	연극아 같이 놀자
모집기간	6월 1일~5일	6월 8일~6월 12일
교육기간	6월 13일, 20일, 27일 7월 4일, 11일 오전 09:30~12:00	6월 20일, 27일 7월 4일, 11일 10:00~13:00
대상	초등 고학년	초등고학년
프로그램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교과서 전래동요 속으로,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주)문화공 샌드아트 뮤지컬 감상 등	연극과 친해지기(인사나누기, 거울 되어보기), 연극놀이, 연극만들기 (뮤지컬 장면만들기, 낭독공연만 들어보기), 연극 체험하기(시립극단 등 지역 공연 관람)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 부산문화회관
- 참가비 : 무료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아카데미 담당) 051-607-3102~4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신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옐로인플라워 꽃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p>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330,6000 하단 209,6015 서면 606,6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p>	



부산문화회관 2015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2기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 여행

교육기간 6월 13일 / 6월 20일 / 6월 27일 / 7월 4일 / 7월 11일

모집인원 초등학교 3~6학년 기수당 50명(부모님 참가)

모집기간 6월 1일~5일

프로그램 내용 교과서 동요속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동요, 마음으로 느끼는 동요, 교과서 전래동요 속으로, 나만의 동요집 만들기(북아트), (주)문화공 샌드아트 뮤지컬 감상 등

강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전상철, 북아트 강사 김태연, 동화구연 강사 김효선 외

부산시립극단

연극아! 같이 놀자!

교육기간 6월 20일 / 6월 27일 / 7월 4일 / 7월 11일

모집인원 초등학교 고학년 40명

모집기간 6월 8일~6월 12일

프로그램 내용 연극과 친해지기(인사나누기, 거울 되어보기), 연극놀이, 연극만들기 (뮤지컬 장면만들기, 낭독공연 만들어보기), 연극 체험하기(시립극단 등 지역 공연 관람)

강사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혁우, 염지선, 김은옥, 서보기

수강료 전액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02~4



주최



주관



주최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감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향유 능력 및 정서함양, 감수성 및 소통 능력을 제고하고 전전한 토요 여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제14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2015. 7. 3 (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Verdi
Messa
da
Requiem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제157회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Con. 윤의중 Sp. 김유섬 Ms. 추희명 Tn. 김충희 Br. 최종우
부산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2015. 6.4(목)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문의 홍보팀 607-3108 공연운영팀 607-3142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